

# 성도의 빛 8

1977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벗 8 1977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렌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 고문

고든 비 헝클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스 에이 캘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 차례

우리가 섬기는 이상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1
새로운 계명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5
이웃의 정을 돈독하게 하시는 예언자	게리 에반트	9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린 엠과 호프 에이 힐튼	11
땅속에 사는 사람	서리 리	17
부모를 공경한 예언자	수잔 애링튼 매드슨	20
암몬	메이블 존스 개봇	23
심심풀이		24
인생이라는 경기	폴 에이치 던 장로	31
그의 양을 먹임	데오 이 맥킨	34
유화 원리를 사용하여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35
지역 지도자 메시지	서 희철	38
교회 및 지역 소식		39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45호, 제13권 제 8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7년 8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권 소유
---	--

# 우리가 섬기는 우상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우 관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기억되는 감각이 후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요즈음 아침마다 집밖에 나서서 수 십년 동안 맡아왔던 부드럽고 싱그러운 풀 냄새와 흙 냄새를 맡을 때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나는 밖에 나가 푸른 잔디 냄새를 맡는다면 데에서 미풍에 실려 오는 쭉 냄새 등과 같은 독특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아리조나에서의 소년 시절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곳은 건조한 지역입니다마는 의지가 굳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이 꺾으나 개나 항상 땅과 가축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교통 수단은 말이나 마차였습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과 함께 과수원이며, 먼지나는 길이며, 콩, 도마도, 양파, 호박을 심은 밭 이랑 사이를 바람처럼 곧잘 뛰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에는 누구보다 자연과 벗하여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낮에 천둥을 몰고 오는 검고 짙은 구름이 모이기 시작할 때 나는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굽은 빗방울이 먼지가 쌓인 길에 떨어지면서 점차 빠른 빗줄기로 변했을 때, 나는 어린 시절 한여름 오후면 곧잘 천둥을 몰고 오는 무서운 구름이 산 중턱을 내려오다가 목마른 대지에 시원스레 비를 내리게 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헛간을 향해 뛰었으며,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면 우리는 꿈쩍하지 않고 그자리에 앉아서 점점 세계 퍼붓는 비의 위력을 놀라운 듯이 바라만 보

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흙 냄새, 나무 냄새, 풀 냄새로 가득 찬 대지는 더욱더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오래 전 석양이 물드는 저녁에 소 떼를 몰던 일이 생각납니다. 나는 곧잘 황혼의 부드러운 빛과 해바라기의 향기로운 내음 속에서 오래 묵은 울타리에 기대어 서서는, “내가 만일 세상을 창조한다면 어떠한 세상을 창조하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나는 천둥을 바라 보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움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처럼 기분 좋은 일들을 회상할 때 또 다른 생각이 내 머리속에 찾아 들었습니다. 산 중턱을 낮게 내려 덮은 짙은 검은 구름은 여러 해 동안 총관리 역원들이 관심을 두고 있던 문제로 내 생각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주님의 택함받은 예언자가 관심과 주의를 모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격동하는 그러나 중대한 시대에서 이 세상이 처하여 있는 일반적인 사악한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게 된다는 일반적인 원리가 생각납니다. (눅 12:48 참조)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으며, 그 대가로 의로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과 그들에게서 기대되는 바를 비교해 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최대한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앙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적에게까지  
전해서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홍수 이전의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나는 오랜동안을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을 지나거나 광활하고 아름다운 지구 위를 나를 때 나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세상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를 비교하면서 우리 인류는 이토록 훌륭한 지구에 있을 자격이 없지 않은가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이같이 신음하는 소리를 예누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화있도다. 인간의 어미된 나는 화 있어 괴롭도다. 내 자식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피곤하다. 어느 때에 쉬어 내게서 나온 더러움을 씻어 내리오?”(모세서 7:48)

총관리 직원들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주변의 오염, 무례, 도둑질, 거짓말, 오만, 신성모독, 간음, 간통, 동성애, 생식하도록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살인과 이와 동등한 죄에 해당되는 행위, 그 외의 갖 가지 신성 모독 행위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외침이 그토록 축복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우기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와 같은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는 것은 거의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성도들은 많은 영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며, 영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영생의 길을 보고 아는 것만으로 그 길을 걷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의 유혹에 이끌려,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구약을 공부하면서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찌니라”는 계명을 십계명 중 첫째 번으로 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신앙을 행사하기 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에 의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질적인 것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여 신앙을 잃게 될 때, 신앙 대신 “육체의 힘”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단 5:23)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입니다. 구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두고 가장 신

퇴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경배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이스라엘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구를 읽고, 니파이가 제안한 것과 같이 그들을 우리 자신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고대의 우상 숭배와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가족과 땅과 공간과 부를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세속적인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돈, 주식, 증권, 재산, 가구, 자동차 등, 길고 행복한 이 세상 생활을 보장해 줄 것같은 이러한 자기의 우상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와 같은 많은 자원을 우리의 가정과 정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 곧 선교 사업을 확장시키고, 자녀를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키우며,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수행하고, 모든 면에서 이웃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러한 축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를 꾸미면서도, 굶주리며 궁핍하며 헐벗고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가 너희 옆을 지나쳐 가거늘 저들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느냐”(골 8:39)

오늘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교성 1:16)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그가 투자한 사업체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 하여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얻기 위해 주님께 대한 봉사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세로 백만불어치의 금은 지각층에만 매장되어 있는 금의 총 매장량의 약 270억분의 일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란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신 주님은 “수 없는 세계”를(모세서 1:33)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이 신권의 성약과 맹약을 받아들이면(교성 84:33~44)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38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과 옥옥에 눈이 어두워 이 위대한 약속을 저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토록 보잘것 없는 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것에 비할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한 청년은 이러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잘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성능 좋은 그의 새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성능과 속력을 자랑했으며,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끊임없는 자동차의 질주는 그가 실로 어딘가로 가고있다는 환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아버지는 “그 애는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 애에게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만족하고 있었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것으로 족할까요? 이 청년은 자기의 자동차의 힘이 바다나 태양의 힘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율법이나 신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많은 태양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권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강철과 고무와 빛나는 크롬으로 만들어진 보잘것 없는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직장에서 은퇴하였으며, 실제로 교회에서도 은퇴하였습니다. 이들은 소형 트럭과 캠프용 천막 장비를 구입하고는, 모든 교회 직책을 버리고, 전국을 두루 다니며 짧게 남은 여생을 즐겼읍니다. 이들은 너무 바빠서 신전을 방문할 시간이 없었고, 계보를 탐구할 시간이 없었으며, 선교 사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제사 정원회와의 연락도 끊겼으며, 개인 역사를 기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도력을 지부는 필요로 하였으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전, 원숭이를 사로잡기 위해 정글에 갔던 자들에 관한 기사를 읽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하여 그물 던지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물 던지기는 작은 동물을 다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발한 착상을 해냈읍니다. 그들은 조그만 상자를 수없이 만들고, 각 상자의 위에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리고는 이 상자들을 나무 아래에 갖다 놓고, 각 상자 속에 원숭이가 특히 좋아하는 열매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자 원숭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상자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 먹을 열매가 보이자 원숭이는 팔을 그 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열매를 쥐고 손을 빼려 하여도 열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숲에 숨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나와 원숭이에게 물려 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은, 원숭이가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도망칠 생각에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뛰지마는 손에 쥔 열매를 놓고 손을 빼서 도망가려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원숭이를 잡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 곧 별의 왕국에 속한 것을 움켜 쥔 이들은 아무리 위급한 때가 오더라도 움켜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은 이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는 데 온 일생과 자원을 바치면 그것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현대인이라고 자처하며, 과거 어떠한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임무를 쉽게 저버리는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돌과 강철로 만들어진 우상, 즉 군함, 비행기, 미사일, 요새 등에 막대한 경비를 투여해 놓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존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기술을 잘 익힌 자들을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세주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사탄의 거짓된 애국심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마태복음 5:44~45)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는 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미대륙에 거하는 주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입니다.(나이 1:7 참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출 14:14; 교성 98:37. 그밖에도 이러한 내용의 참조 성구는 많음) 약속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주께서 배반당하실 때 하신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 26:53) 병정들이 얼마나 두려워 하였겠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같은 군사의 보호로 구출되었으며(대하 20장 참조), 엘리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써 위로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

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왕하 6:16).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17절).

에녹도 신앙이 강한 자로서 적으로 인하여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신앙이 참으로 컸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니 원수가 대적하러 오는지라 그가 주의 말씀을 말하니, 땅이 진동하여 산이 도망가며 강물이 흐름을 바꾸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광야에서 들려 모든 민족이 크게 두려워 하였더라.”(모세서 7:13)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없으며 그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앙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적에게까지 전해서 그들을 더 이상 우리의 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우상 숭배와 “육체의 힘”에 의존하는 타성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현대에 온 세상에게 “바빌론에 남아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리라.”(교성 64:24)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행 2:37)

이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38절)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는 베드로가 전하던 말과 꼭 같은 말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교성 1:11~12)

각 사람과 각 가족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준비하는 길은 보다 강한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며, 지상의 왕국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참된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영원성을 알게 될 때, 세상의 것을 버리고 참된 축복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러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자를 위한 영생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

# 새로운 계명

너 자신과 네 친족을 구하라!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에서 오래 전부터 경전의 말씀으로 삼아 왔던 두 가지의 계시가 197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표준 경전에 첨가할 것을 결정한 것은 주님과 그의 성스러운 말씀을 사랑하고, 하늘로부터의 인도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76년 3월 25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영이 임재하신 가운데 열렸던 엄숙한 모임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는 다음을 값진 진주에 첨가하도록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1836년 1월 21일,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어린 아이의 구원에 관한 시현입니다.

1918년 10월 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게 주어진 시현. 이 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 방문과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입니다.

심사 숙고와 선전을 통해서 이 시현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하여 잘 알고 난 후,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은 15사람은 이에 손을 들어 지지하였습니다.

사도와 예언자가 있는 참된 교회에서는 경전이 지금이나 앞으로도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백성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업은 끝이 없고 그치지 않습니다.(모세서 1:4, 38)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영의 은사가 약속되어 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계시와 영광스러운 시현을 주십니다. 영의 은사는 예언자와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은사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장로가 성신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경전입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며, 생각이며, 말씀인 것입니다.(교성 68:1~4)

첫번째 경륜의 시기로부터 주님의 백성은 교회를 이끌도록 임명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말씀을 출판하여 공식적인 경

전으로 삼아 왔습니다. 영감을 받은 말과 글은 모두 참되며, 성도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정되어 출판된 계시, 시현, 예언, 말씀 등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교회의 표준 경전의 일부가 되며, 교리와 절차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해의 왕국에 관한 예언자의 시현과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시현은 표준 경전에 포함됨으로써 더욱 새롭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현은 모두 표준 경전에서 달리 찾을 수 없는 복음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이 주제에 관하여 이 시현이 인용되고 참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와 정식 공인을 얻을 수 있는 계시는 이외에도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이 두 계시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교리에 관하여는 많이 알려졌으며, 성도들이 그것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원리는 널리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경전의 말씀으로써 채택된 이 시점에서, 이 두 개의 시현은 새로운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교리가 요구하는 바를 말하고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선포입니다.

영혼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는 이 두 계시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1. 죽은 자의 구원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말일에 계시를 받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가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요 5:25) 또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몸이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묻혀 있는 동안, 영육에 가셔서 전파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벧전 3:18~20, 4:6)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바울의 말씀(고전



15:29)과 갇힌 자를 풀겠다는 이사야와 스가라의 말씀(사 42:7, 49:9, 61:1, 슥 9:11), “시온산에 올라”를 구세주에 관한 오바댜의 예언(옵 21절) 등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라고 한(말 4:5~6) 말라기의 불가해한 약속도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교리가 우리에게 말일의 계시로써 분명하게 나타남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일의 경륜이 시작되던 당시, 요셉 스미스가 이 성구에 대하여 일반 기독교 세계에서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교리는 말일에 모로나이가 시작하였습니다. 1823년 9월, 잊을 수 없는 날 밤에 물문의 아들이 현대의 첫번째 말일성도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말일에 올 엘리야에 관한 약속을 수정하여 완전케 하였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말라기의 약속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재언급되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며, 그리하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치리라는 경전의 약속은 다음과 같은 말로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 2서 38~39)

이와 같이 수정된 성서의 해석은 때가 이르면 요셉 스미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교적 영적으로 단련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그로서는 이 성구가 담고 있는 완전한 의미를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3. 물론경은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교리에 관해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된 이 성스러운 경전에는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영원한 세계에서 충만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행하여야 할 바가 기록되어 있는 영원하고도 충만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진리를 분명하게 안 자들에게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과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으며,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앨 34:32~33, 35~36; 니삼 12:20 참조)

4. 모세서는 갇힌 자들이 풀릴 것을 암시해 줍니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요셉 스미스는 1830년 12월경에 받은 계시를 통하여, 홍수로 멸망된 자들이 옥에 갇혔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셔서, 주께서 영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까지 그 대로 남아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까지 저들은 고통중에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서 7:38~39)

5. 노아 시대에 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난다는 것이 해의 왕국의 상급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832년 2월 16일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시로써, 예언자는 노아가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아 홍수로 멸망되었던 자들이 영옥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도 이들은 해의 왕국의 평안은 누릴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 있는 동안 진리가 주어졌을 때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달의 왕국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6. 아브라함서와 교리와 성약에는 조상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조상과 맺은 성약은 성경에도 암시되어 있으나, 간결하고 분명한 약속은 교리와 성약과, 1835년 7월부터 요셉 스미스가 번역을 시작한 아브라함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이라 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한다. 이들은 그들 자신과 후손을 위하여, 해의 왕국의 결혼을 통하여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과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창 12:2~3; 13:16; 15:5~6; 17:1~8; 22:17~18; 26:3~5, 24; 28:3~4, 13~14; 35:11).

아브라함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와 그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한 가지 약속을 줄 것임이니 그 약속은 곧 이 권능” 즉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권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축복사는 다음과 같은 약속도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네 후손(문자 그대로의 후손이



니 몸에서 나온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니라.”(아브라함서 2:11)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신권과 복음과 완전한 구원 곧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생득권(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득권은 복음이 지상에 전파 되었을 때 살았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문자 그대로의 후손이니 몸에서 나온 자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영생은 해의 왕국의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7. 해의 왕국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시현.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계시. 때는 1836년 1월 21일, 커틀랜드 신전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 그의 아버지 요셉 스미스 일세, 올리버 카우드리(예언자와 함께 왕국의 열쇠를 지닌 교회의 두번째 장로), 그리고 대관장단의 두 보좌인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데릭 지 윌리엄즈였다. 그들은 부분적인 엔다우먼트를 집행하고 있었다. 완전한 엔다우먼트 의식은 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짓는 신전이 완공될 때까지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놓여진 교리의 기초에 주님의 영이 임재한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장막이 걷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았나니”라고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앉은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도 보았나니.” 그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님이 성스러운 곳에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 아버지는 그곳에 함께 있었으며 어머니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시현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시현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죽은 나의 형 알빈을 보았나니 나는 주님께서 두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빈이 이 세상을 떠났고,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던지라 그가 어떻게 그 왕국에서 상속의 땅을 받았는지 기이하게 생각하였나니.” 경전에는 조상과 맺은 약속, 특별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 영육에서의 복음 전파 등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언자는 그때까지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심오한 내용의 시현은 보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응답이 주어졌고 복음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모두 그 빛을 비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했나니.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도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니,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니라.”(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2:380)

교회의 회원은 모두 이 성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만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위안의 확신을 받았읍니다.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는 모든 어린 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음을 보았나니.”(교회사 2:381; 2:382~89 참조)

8. 일라이어스와 엘리야는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이 예언자에게 보여진지 2개월 반이 채 못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일라이어스를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어 죽은 자의 구원에 관계되는 율법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때가 1836년 4월 3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났던 곳은 커틀랜드 신전입니다. 권능과 축복을 받은 자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였습니다.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권 시대를 말기며 이르시되, 우리와 우리 자손으로 인하여 우리 후에 올 세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더라.”(교성 110:12)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사명 즉 계시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복음”을 다시 주었습니다. 이 복음 즉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하나의 가족으로 영원히 지속되고 번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일라이어스에 이어 엘리야가 왔읍니다. 이제 밝혀진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녀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현이 달히고 나서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간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 계심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 증거한 그때니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교성 110:13~16)

그리하여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인봉의 권능을 부여하였으니,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라이어스, 엘리야, 메시아”에 관한 설교에서 요셉 스미스가 밝혔듯이, 엘리야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산자를 위한 복음 의식을 집행하고, 둘째로는 죽은 자를 위한 복음 의식을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5~41페이지)

엘리야가 인봉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전에서 결혼하여 일라이어스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한 축복을 받았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으로서, 만일 살아있을 때 복음이 주어졌더라면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을 조상도 이 축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과 네 친족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9.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그들을 죽은 자의 구원과 관계되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예언자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이 더하여졌으며 교회의 여러 대관장들은 새로이 일어나는 문제를 영감을 받아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요셉 스미스의 설교가 있고, 교리와 성약 127편과 128편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서한이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과 몇몇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인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한 계보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회 계보 기구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족의 친족 모임이 있으며, 모든 사업은 점차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10.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시현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지식을 더 넓혀준다. 이 현대의 계시가 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죽은 자의 구원에 관계되는 교회의 기존 교리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확인한 계시입니다.

둘째: 스미스 대관장은 지상의 격동하는 4,000년 동안에 죽은 모든 사람, 곧 “죽은 자의 무리들”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 이들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영적인 상태의 주님이 위대한 구속 계획을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악한 영들에게는 가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음성을 높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그는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

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나니,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

넷째: 지옥 부분 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 전체가 영옥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다섯째: “나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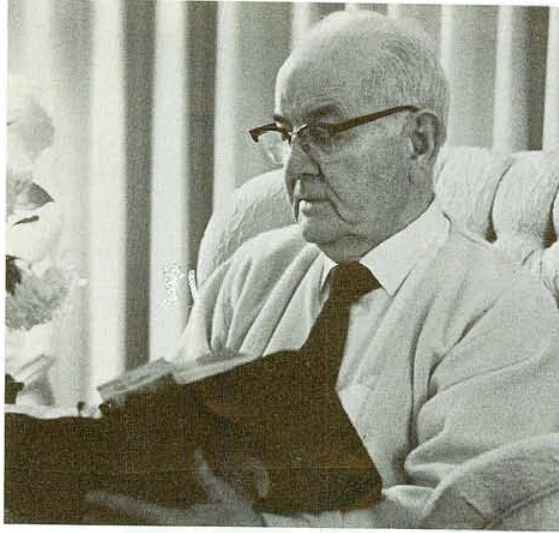
그러므로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충실한 백성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죽은 조상을 찾아 성별된 성스러운 전당에서 그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을 집행합니다. 이들 충실한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조상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데저렛 서적사, 1939년 472~76페이지)

11. 죽은 자의 구원과 관계되는 계시와 그외의 다른 계시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도 계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샘으로부터 생명수는 여전히 흐를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직 모르고 있는 교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진리를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보다 많은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와 받은 시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적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수많은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이 두 가지 계시 이외에 여러 계시를 적절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신앙과 헌신으로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그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알고, 많은 경전의 말씀을 받으며, 많은 표준 경전의 말씀을 갖게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율법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스러운 기록에 너무 많은 새로운 계시가 첨가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의 말씀에는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이웃의 정을 돈독하게 하시는 예언자

게리 에반트 글

**약** 삼백 오십만이나 되는 교회 회원들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존경한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어느 와드 회원에게 김볼 대관장은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이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교회 본부 대회에서 모임을 감리하시는 김볼 대관장님의 모습과 와드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김볼 대관장님이 속해 있는 와드의 감독은 말한다.

감독은 예언자가 참석하시는 와드의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제가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 스테이크 부장님은 김볼 대관장님께서 자신의 감독으로 나를 승인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더군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관장님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고 온화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 온 와드가 축복을 받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집사로 성임될 때 우리는 아들이 예언자에게 성찬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 간증 모임은 매우 특별합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주님의 예언자임을 간증드리지요.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면서 그의 면전에서 이 간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닙니다.”

감독은 김볼 자매님이 와드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도 말하였다. “김볼 자매님은 특히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영적인 생활 공과를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

려해 주셨습니다.

“김볼 자매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계시실 때면 언제나 와드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그분은 헌신적인 방문 교사로서 참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대합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자신이 스스로 기꺼이 행하고 싶지 않은 일을 회원에게 결코 시키시는 적이 없다고 감독과 다른 와드 회원은 말하였다.

“그분은 지역의 자치 모임이나 회합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라는 서한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셨는데, 그분과 자매님은 실제로 이러한 지역 사회의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197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에너지 파동으로 곤란을 겪을 때 그는 교회 지도자에게 가능한 한 걸어다니라는 공문을 발송시키고, 그분과 자매님은 교회에 걸어다니셨지요.”

“김볼 대관장님은 회원들에게 각자가 채소밭과 식품 저장소를 준비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김볼 대관장님 댁에는 채소밭과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와드 행사의 하나로서 와드 회원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분들도 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감독은 김볼 대관장님의 모토는 “즉시 행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이고 미루지 않습니다.”라고 감독은 말했다. “우리가 와드 예산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때, 최초의 회신을 받은 것은 김볼 대관장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삼십억 인구의 예언자이시며, 삼백 오십만 성도들로부터 예언자로 존경받고 있지만 시간을 내어 병든 자를 방문하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저는 병자를 방문하러 갔을 때 이미 김볼 대관장님이 와 계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병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



먼 그는 전화를 걸어서 방문해도 좋은지를 묻습니다.

김불 대관장님은 집에 계시실 때는 반드시 소속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십니다. 연사가 성구를 인용하거나 읽을 때 경전을 참조하십시오으로써 경전을 갖고 다니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는 연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매달 김불 대관장님 가정을 방문하도록 지명받은 가정 복음 교사는 대관장님과 자매님도 가정 복음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하며, 그들도 와드 회원과 똑같이 취급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타 선교부가 조직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재 강조하였습니다.”라고 가정 복음 교사 한 사람이 말하였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가 회원으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회원에게 보여 주는 필름스트립을 보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그 필름스트립은 김불 대관장님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에게 그 필름스트립을 보여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최근에 가정 복음 교사가 변경되어 18세의 제사가 김불 대관장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지명되었다.

그 짧은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번 그분의 가정을 방문하였어요. 그들은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편하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가 떠나기 전에 무언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또한 교회에서 우리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성찬을 축복하기 위해 나갈 때 그분 옆을 지나자 그분은 내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가정 복음 교사 선임 동반자는 5, 6년 동안 김불 대관장님의 가정을 방문해왔다. “저희가 처음 그분을 방문했을 당시는 그분이 사도이셨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날 저

녀, 우리는 그분과 친해졌으며, 그분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알아냈습니다. 그분은 ‘경전에 대해서 토론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분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경전을 읽고 토론합니다.”

전 가정 복음 교사는 예언자의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으로써 방문을 마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어떤 때는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나 김불 자매님께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분이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분은 늘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저를 크게 감동시켜주었습니다.”

김불 대관장님의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감독단의 보좌한 사람은 대관장님의 서재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고 말한다. “김불 대관장님보다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해요.”라고 말하였다.

“언젠가 아내가 준비하는 공과에 관해서 김불 자매님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불 대관장님이 문을 여시고는 ‘어서 들어 와서 함께 식사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우유를 마시더군요. 전통적으로 이같은 식사를 하던 농가에서 자라왔던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좀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았겠으나 식구들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므로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나는 김불 대관장님보다 더 겸손하고 진지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가정 복음 교사는 말했다. “그분은 우리가 가정 복음 교육을 가는 것에 항상 감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만사를 제쳐 놓으시죠. 그는 가정 복음 교사를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

**약** 4개월간의 급작스러운 준비를 마친 우리는 아라비아로 갈 준비가 되었다. 중동의 친구들은 대기 중에 있었다. 우리의 머리속과 가방은 고대 문서, 현대 탐험자, 경전상의 기록 등에서 수집된 자료로 꽉 채워졌다. 참된 사명감과 모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1976년 1월 15일, 가능한 한 리하이의 여행길을 따라 여행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났다.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사의 일급 사진 기자인 제리 실버와 워싱턴 디 시에 있던 25세된 딸 신디아가 우리와 동행하였다.

미국무성은 우리에게 아라비아해에 연해 있는 오만의 살랄라로부터 여행을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통고하여 주었다.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4개국을 통과하는 데 닥치게 될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대단히 많은 것이었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우리는 두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였으니, 그 두 지역이란 리하이가 레뮤엘 골짜기에서 셰이저까지 여행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홍해 변방, 그리고 리하이가 바운티풀까지 여행한 길로 생각되는 아바에서부터 아라비아해까지 이르는 사막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역은 상공으로 비행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리하이가 여행하였으리라는 길은 모두 통과해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만족해 한다. 우리는 여행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으나, 리하이가 여행한 차례대로 우리가 발견한 자료를 제시하겠다.

현재의 베두인 유목민의 생활 방식이 2,600년 전 조상

들의 그것과 여전히 같다는 사실에서만 리하이의 사막 생활 방식에 관한 우리의 결론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은 매우 도움이 컸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고학적, 인류학적,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다 깊은 고찰이 없이는 이를 증거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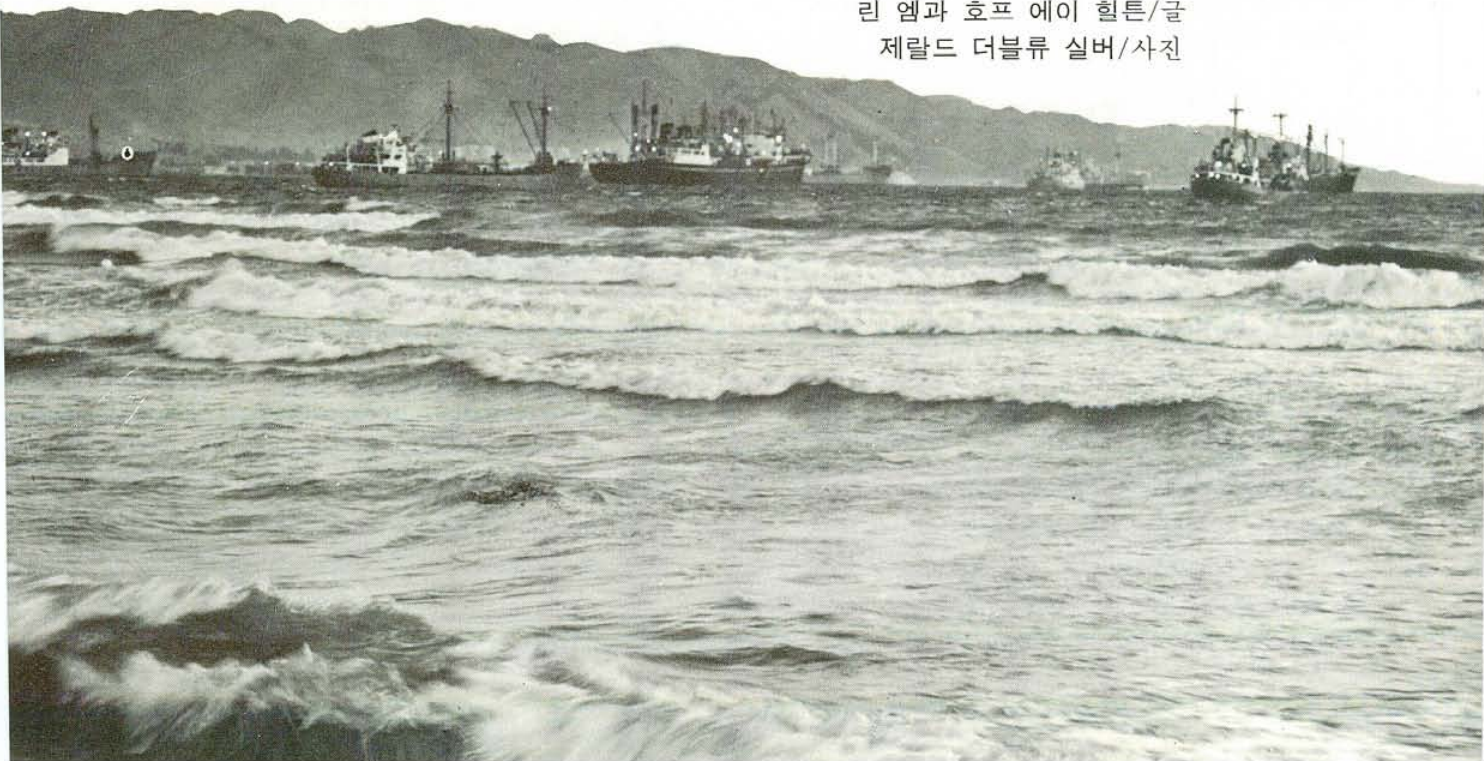
이 일로 중동 아시아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다섯 주 일 밖에 없었다. 우리가 낙타나 나귀를 타고 여행하지 않고 냉방 시설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유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우물과 지형학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대 유향길은 이제는 포장된 도로로 변해 있었다.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남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얼마 오래 여행하지 않아 곧 사막으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주변의 가파르고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과 비교적 완만하고 모래로만 덮인 불모의 사막과 크게 대조적인 두 지형을 보면서, 우리는 리하이 일행은 사막으로 멀리 여행하기 전에, 아마도 사막에 이르자 곧 낙타를 구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길로 여행하였든지 관계없이 리하이는 낙타 시장에 가서 그의 나귀를 낙타와 바꾸었을 것이다. 돈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 금은 보화를 집에 두고 떠났다고 해서 돈도 전혀 갖지 않고 떠났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15차례나 성지를 여행하였기 때문에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행할 수 있었던 길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쪽 도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

##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 2부: 여행

린 엠과 호프 에이 힐튼/글  
제랄드 더블류 실버/사진



코바에 이르는 세 가지 주요 간선 도로의 두 가지 도로로 분리된다. (그림 5와 7월호 성도의 벗 참조) 우리는 세 가지 간선 도로를 모두 탐사하였다. 아직도 솔트산 계곡의 오솔길로 남아 있는 지선 도로로는 가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행길을 우리와 동행해 주었던 우리의 친구 사디 파타피타는 스스로 이 길을 걸어서 넘음으로써, 어렵지만 여전히 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모든 길에 관한 자료를 살펴본 다음 우리는 여리고 가까이로 가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해 서쪽 쿨란으로 향하게 되는 중앙로를 택하였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리하이가 왕도를 택하였으리라는 추측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쿨란길을 택하여 가면 예루살렘 성을 곧 나서게 된다. 내리막길의 언덕이 깔려 있는 지형상의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디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도망갈 때 이 길을 택하였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지상에서 가장 지면이 낮은 곳으로 해면에서 1,290피트나 낮은 사해 서해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곳이 못된다. 우리는 몹시 황폐되어 있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았다. 광물질이 녹아 있는 물이 긴 지질 단층을 따라 고여 있었다. 그러나 이 서해안을 따라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많은 것에 놀랐다. 대부분의 샘을 이 지역에서 지냈던 살림 사드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있는 훌륭한 해변을 고대 사람들은 여행길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리하이가 동쪽의 왕도를 택하여 여행하였다면 암몬, 모압, 에돔 등의 외국 땅으로 여행하였을 것이나, 이 서쪽의 사해 서해안변을 따라 여행하면 모국인 유대 땅으로 여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쪽 길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서해안에서도 그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는 피하여 여행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자라는 사실이 쉽게 발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와디 알 아라바

우리는 왜 모든 길이 아코바로 향하여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등이 있는 지형적으로 낮고 넓은 계곡인 와디 알 아라바에 들어서자 그 이유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곳은 레바논의 베카 계곡으로부터 남쪽의 홍해 아코바 만 아래까지 펼쳐진 “툼이 난 계곡”의 일부이다.

와디 알 아라바의 북부는 사해로 들어가고, 남부는 홍해로 흐른다. 이곳은 넓고 먼지나는 모래 평야로서,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이다. 5~1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높은 산들이 양쪽으로 솟아 있다. 강우량이 적어서 풀이나 위성류 정도만 조금씩 자라는 정도이다. 왕도를 제외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평야뿐이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베두인 유목민이 간헐적으로 거주하였던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베두인

유목민의 천막과 와디에서 풀을 뜯어 먹는 낙타, 양, 염소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고대 유목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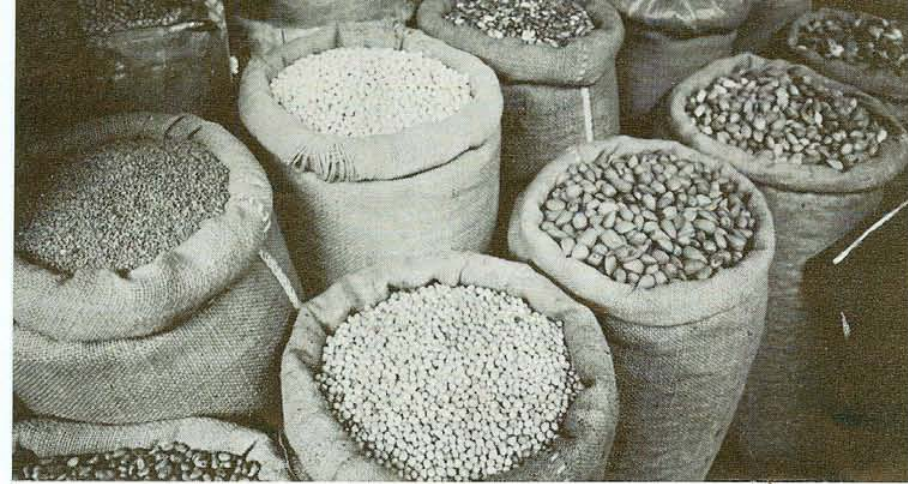
히랍의 역사가 스트라보는 1세기에 관하여 쓰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낙타 상인들은 별을 안내자로 삼아 밤에만(이 지역을) 여행하였으며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갖고 여행하였다.”(스트라보 121페이지) 리하이도 이와 같이 하였을 것이다. 많은 가족과 식량을 실은 동물을 거느린 리하이로서는 그를 쫓는 사람이 있었다면 결코 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리하이가 숨으려 하더라도 사막 주민이나 노련한 추적자들을 고용하여 리하이를 잡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로부터 리하이가 이용했을지도 모르는 아라비아의 변경될 수 없는 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수용소에 관한 것이었다. 족장이 도망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부족민은 그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물론 족장이 도망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처형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리하이는 한 부족 사회에서 다른 부족 사회로 여행하는 동안 이 아라비아의 법의 혜택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 양식

우리는 리하이가 “양식”(니일 2:4)을 갖고 여행길에 나섰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리하이 일행이 갖고 떠났으리라고 생각되는 물품을 모아 보았다. 여기에는 천막이 포함되었을 것이며, 통밀, 밀가루, 보리, 분유, 올리브 기름이나 참기름, 올리브, 대추 등의 식품과 약간의 조리용 기구, 침구, 그리고 활, 화살, 칼 등의 무기가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 베두인 소년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의 가정은 유목민으로서 상당히 유복한 편에 속하였다. 그의 천막에 가 보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문 곁에는 나귀가 먹이를 먹고 있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말과 낙타가 있었고 양과 칠면조도 눈에 띄었다. 천막의 문을 젖히고 들어서니 중앙 지주에 손으로 짠 바구니가 주렁주렁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바구니에는 남비나 주전자 등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물 주머니로 채워져 있는 바구니도 있었다. 아궁이 주위에는 양탄자와 베개가 있었으며, 안장과 고삐는 구석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한쪽 구석에 밀어져 있는 두꺼운 종이 상자 안에는 그들의 전통적인 의상이 담겨 있었다. 창문은 없었으며 빛이 들어오는 곳은 천막 문으로만 들어왔고 석탄을 피우는 불로만 빛을 받을 수 있었다. 장난감은 없었다. 염소털로 짠 무거운 검정색 천막에는 군데군데 흰 양털로 짠 곳도 있으며, 이 천막은 굵은 밧줄에 이어져 천막 막대(스테이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물기라곤 물주머니에 있는 물 뿐이었다.

천막 안에는 여자들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다. 우리 일행의 여자들은 특별히 그들의 옷과 장신구를 착용해 볼



예루살렘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전과류, 곡류, 조미료 등. 리하이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방의 생활 양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오늘날의 기본이 되는 식품은 리하이 가족이 사용하였던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 아랍 상인은 염소 가죽 주머니에 꿀을 담아 팔고 있다. 염소 가죽 주머니는 수천년 동안 꿀만이 아니라 곡식, 물, 유황, 기타 여러 가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여인들은 여러가지 화려한 색깔의 꽃 무늬와 동물 무늬가 수놓여 있는 아름다운, 검정색 옷을 입는다. 여인들은 항상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데, 수건의 색깔은 종족의 관습에 따라 다르다. 천막을 나설 때는 검정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남자들의 의상은 흰색의 긴 사쓰와 새쉬(허리띠)로 간단한 것이다. 겨울에는 여기에 양털로 거칠게 짠 외투인 아바를 걸친다. 이 외투는 매우 따뜻하며, 이슬과 때때로 오는 비를 막아 주기도 한다. 또한 담요의 역할도 한다.

현재 베두인 유목민의 생활 조건이 주전 600년경의 그것과 거의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서의 설명과 모든 설명은 더 한층 흥미롭다. 그러므로 베두인 친구가 갖고 있는 것과 리하이 일행이 여행에 갖고 다니던 것은 비슷할 것이다.

리하이가 부유하였는데도 장비를 많이 갖지 않고 여행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상품을 갖고 다니는 조그만 대상을 습격하는 사막의 약탈족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 같다.

아마도 리하이는 그의 장비를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아 갖고 다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라비아 반도의 여행자들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아코바에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큰 염소 가죽으로 만든 고대풍의 물주머니를 발견하였다. 앞 다리를 함께 생가죽으로 꿰매어 손잡이를 만들고, 배 부분의 절개된 곳을 역시 생가죽으로 꿰매었으며, 뒷다리를 묶어 물이 새지 않게 하였으며, 목을 물 주머니 마개로 사용하였다.

이 물주머니는 상당히 오래 된 것같이 보였으며 많이 사용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 물주머니를 우리에게 판 상점 주인이 이 물주머니가 적어도 10 세대 전에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더욱 놀랐다. 우리는 의심적게 생각하며 어떻게 가죽을 무두질했길래 그렇게 오랜 동안 부드럽고 물이 전혀 새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냐고 물었다. 상점 주인은 그들은 새 가죽이나 주머니에 꿀과 낙

타의 젖을 가득 채워 6 개월 동안 땅속에 묻는다고 대답하였다. 시일이 경과되어 가죽을 꺼내면 털은 모두 빠지고 가죽은 완전히 무두질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라비아 친구는 그 방법이 그들간에 잘 알려진 무두질 방법을 분명히 말하면서 잘 무두질된 주머니는 한 가죽이 1, 2 백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홍해의 동해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아코바를 거치게 된다. 아코바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현대도로는 분명히 없다. 리하이는 그의 가죽이 도지에서 오래 쉬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들은 사흘간 광야 여행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물을 다시 주머니에 채우고, 어떤 때는 밤을 지내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때 즈음에서 그들은 열흘 내지 두 주 동안 여행하였을지도 모르고, 크게 자란 대추 야자 나무와 아름답게 핀 올리언더 꽃은 사람과 동물의 눈길을 끌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곳에서 24 군데도 넘는 우물을 발견했으며, 어떤 우물은 불과 7 피트 깊이의 우물이었다.

아코바 근처의 깨끗하고 푸른 홍해 바다는 작열하는 사막의 태양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해저 40미터나 볼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길게 뻗어 있는 해안을 따라 여러 가지 색의 산호초가 큰 덩을 이루고 있으며 맑은 물 속으로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열대어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열흘 동안 여행하여 왔던 사막과는 대조가 되는 곳이다.

우리는 강철 제조 산업이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은 적어도 주전 9세기 경부터였음을 조사 연구를 통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고대 용광로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으기 실망했다.

니파이는 바운티풀에서 배를 짓는 동안 가죽으로 플무를 만들어 광석을 녹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운티풀이라 생각되는 살랄라의 오래된 시장에서 가죽으로 된 플무를 발견하고는 참으로 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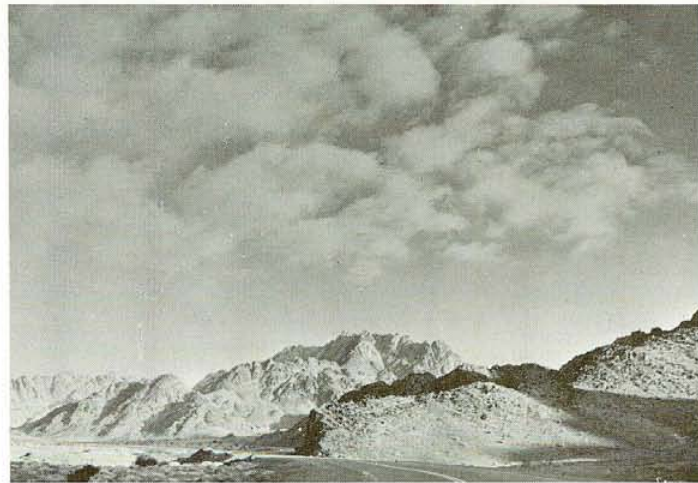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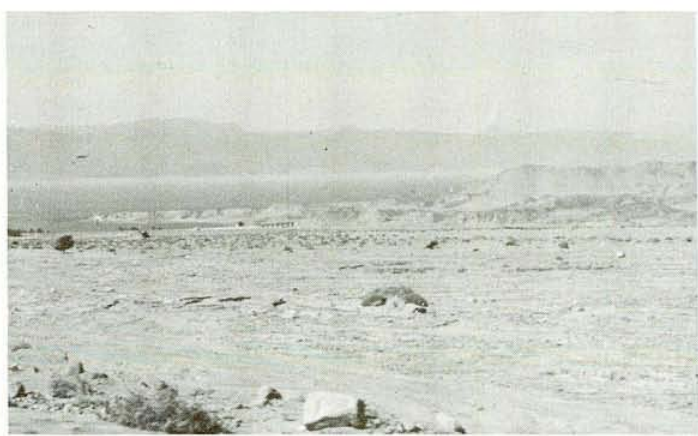
하게 생각하였다. 풀무는 대장간 벽에 걸려 된 채로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대장장이는 그 풀무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의 선조 등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약 24 세대 전부터 사용하던 것이라고 말하였다.(약 주전 6세기경이 된다) 풀무의 모양은 유럽에서 흔히 사용하는 펌프 모양이 아니고 아코디온과 비슷한 모양으로 전에는 한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무두질이 된 염소 가죽의 목을 일반적으로 불 밑에 있는 쇠 목에 맞는 나무 튜브 주위에 묶어 놓은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본 주전 1,000년 경의 진흙 피리를 연상하였는데, 이 피리 역시 용광로의 풀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실랄라에서 본 이 풀무의 염소 다리 넷은 뒤로 잘 묶여 있었다. 등 부분이 모두 뚫어져 있어 여자들의 핸드백처럼 두 개의 평행되는 막대기에 가죽을 끼워 침쇠로 잠글 수 있게 되었다. 대장장이는 우리에게 두 막대기를 한 손에 들고 구멍을 열어 놓고는 가죽을 위로 끌어 올려 공기를 집어 넣은 다음 주머니를 아래로 밀어 넣으면서 닫고는 안에 있는 공기를 목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것이 신기할 정도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저으기 놀랐다. 우리는 이 풀무가 니파이가 사용하던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사막에서 연장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안 우리는 광석을 찾고 그의 연장을 녹이고 배를 만든 니파이의 장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우리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로 "사흘 동안"(니일 2:6) 여행하였다는 설명을 읽은 바 있다. 그러나 5절에서 우리는 이 사흘이라는 것이 "홍해 변방"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아코바에서부터 여행한 날수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 것이 있었다. 니파이는 "홍해 변방에 이르러" "홍해에서 더 가까운 변방의 광야로" 여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니일 2:5) 이 두 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지역에 직접 이르러 보고서야 니파이의 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해안 평야는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의 산맥 사이에 놓인 지역에 모여 있다. 이 평야의 가장 넓은 곳은 지다 근처의 지역으로, 그 폭이 77킬로미터나 된다.(그림 7과 9 참조) 그곳 원주민에 의하면 티하마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고대 유항길이었으며, 리하이 일행이 이 지역을 거쳐 갔을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우리는 리하이 일행이 사흘 동안 여행하여 도착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한 다음 아코바에서 남쪽으로 여행하여 레이맨강과 레뮤엘 골짜기로 볼 수 있는 지역의 유무를 탐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와디, 해안, 산 등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지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방법은 홍해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어 넓은 산맥을 통과하여 산을 오



상: 리하이는 아코바를 떠나 와디 움 쥬페인으로 여행하였을 것이다. 아라비아의 남부로 향한 길은 오늘날의 도로인 이 길밖에 없다. 멀리 보이는 아코바만이 아마도 "홍해의 샘"으로 추정된다.(니일 2:9) 하: 와디 움 쥬페인의 상부는 더 긴 와디인 와디 엘 아팔의 상부와 접하고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리하이는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와디 엘 아팔을 따라 홍해로 나아갔을 것이다.

르는 길이었다. 과거 수없이 불었던 폭풍이 거친 곳을 모래와 자갈로 덮어 약 40킬로미터 넓이의 평평한 "노상"을 형성하였다.(이곳의 해발 고도는 3,135 피트이다) 동물 없이 사람들은 가파르고 돌이 많은 산언덕을 조금씩 오르며 여행하였거나 뽀죽한 정상을 돌면서 오르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와디는 편리한 고속 도로이다. 무거운 짐을 진 낙타가 우리의 차를 앞질러 가는 모습이 이를 증명해 주었다.

정상에서(그림 9 참조) 와디는 갈라진다. 한 길은 동쪽으로 사막까지 닿아 있으며, 다른 길은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길게 뻗어 해안을 돌고 있다. 이 와디, 엘 아팔은 아코바 만의 동해안과 나란히 뻗어 있으나, 사이에 끼어 있는 산맥이 이를 우리의 시야에서 가렸다. 우리는 이 와디를 따라 차를 몰아 내려갔다. 우리는 이곳을 홍해 변방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우리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베다라는 마을의 오아시스에 도착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니파이의 설명과 지리적인 증거가 서로 일치함을 알았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은 시험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발견한 바와 니파이의 설명 내용은 서로 일치되었으나 니파이의 설명의 순서가 맞지 않는 듯한 문제가 있었다. 홍해에서 "더 가까운" 변방은 아코바와 후





상: "레뮤엘 골짜기"로 추정되는 와디 엘 아팔(니일 2:10 참조)은 정상으로부터 100마일 가량을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로 연하여 있다. 경사가 부드럽고 완만하여 낙타가 여행하는 데에는 이상적이다. 하: 홍해 가까이 와디 엘 아팔에는 높고 험준한 벼랑이 있다. 이곳이 니파이가 "주님의 영에 이끌려"(니일 11:1) 갔던 산으로 추측된다.

메이다 사이에 놓여 있는 28킬로미터의 길이였으리라 생각한다. 이 해안에 있는 길과 해변은 특별히 똑같다. 홍해 "변방"이라 한 곳은 방향을 바꾸어 동쪽과 남쪽으로 와디 움 주페인과 와디 엘 아팔에서부터 알 베라까지의 83킬로미터의 길이라고 생각되었다. "홍해에 가까운 변방...을 따라"(니일 16:14) 여행하였다는 니파이의 말은 그들이 다시 해안을 여행할 때 지다 근처의 해안변에서 반 정도 내려온 지역을 가리켜 말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방"과 "더 가까운 변방"의 의미를 발견한 것은 똑같은 가정을 제시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알 베다가 레뮤엘 골짜기에 찻던 리하이의 야영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임시로 내린 이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마리를 두세 개 발견하였다. 홍해 "변방"은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낸 높은 와디였으며, "더 가까운" 변방은 동쪽으로 산맥에까지 길게 펼쳐진 해안변 평야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한 듯이 생각되었다. 갑자기 니파이가 사용한 용어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부각되었다.

리하이는 홍해로 들어가는 강가 계곡에 천막을 쳤다. (니일 2:8)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에는 일년 내내 물이 흘러 홍해로 들어가는 강은 하나도 없다. 이 지역의 연간 강우량은 10밀리에서 152밀리 내외이다. 남서쪽에 있는

에멘의 산맥과 오만의 도파 살랄라에 있는 쿠파 산맥에는 이보다는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으나 강물이 흐를 정도는 못된다. 그러므로 레이맨강으로 여길 수 있는 현재의 강은 없다. 고대 기록 상에도 이 강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 만일 이러한 강이 있었다면 수 세대를 두고 사람들이 이 근처에 모여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은 영어로 "강"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두 가지 갖고 있었다. 하나는 "나찰라"로서 "겨울 강"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강은 여름철에는 마르나, 겨울에 폭풍이 몰아치면 그야말로 격류가 흐르게 된다. 우리의 길 안내자요 친구인 고고학자 살림 사드는 대개 폭풍우가 몰아친 후 이삼 일간 강물이 흐르게 되며, 아라비아 반도에는 우기가 1월과 2월로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물이 흘러 버려죽어 언덕을 경사지게 할 때면 "대단한 힘으로 흐르게 된다."

두번째 히브리 단어 "나하르"는 연중 끊임없이 "달리는 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유프라테스강과 나일강에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이 두 강은 쉬임 없이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은 약간 다른 의미의 "강"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

와디 엘 아팔에 비가 내린 후, 리하이가 이를 가리켜 "겨울 강" 또는 나찰라라고 말했을 것이다. 또한 알 베다에 있는 샘이 작은 냇물을 이루어 남쪽으로 34킬로미터를 흘러내려 홍해로 흘러 들어갔으리라는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는 물이 남아 흐르던 것이 지금은 오아시스 지역의 집중 개간 사업으로 인하여 그곳으로 모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와디 엘 아팔과 와디 움 주페인은 우리만이 발견한 비밀 지역은 아니었다. 이들 와디는 오랜 세월 동안 아코바로부터 홍해 남해안까지의 유향길의 주요 간선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 웬만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거의 구경할 수가 없었다. 홍수를 조절하는 현대의 제방이 몇군데 있으나 이 두 와디의 주요 유역에는 베두인 유목민의 천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와디 중앙으로 들어가는 유역의 맨 아래에서 우리는 천막과 가축 떼를 볼 수 있었다. 이곳에는 낙타가 먹을 수 있는 풀과 다마리스크(위성류) 나무가 많이 있었으며, 나귀, 낙타, 양, 염소가 평화롭게 나뭇잎을 뜯어 먹고 있었다.

우리는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로 차를 몰고 갔는데, 우리의 안내자들의 생각으로 이 길이 고대 대상들의 길이였다고 한다. 수세기 동안 낙타는 가장 경사가 완만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낙타 행상들은 두 지점간의 가장 짧은 지름길을 택하여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안내자의 말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우리의 이론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와디 엘 아팔에서 리하이가 밟았던 길을 달렸던 것이다.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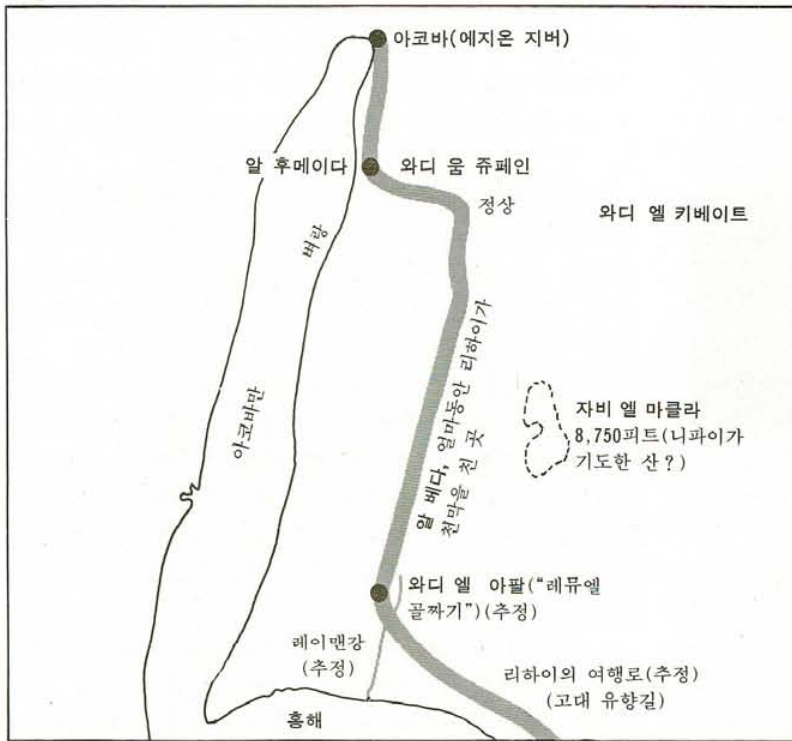
아라비아 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이어진 고대 유항길에 연이어 있는 많은 오아시스 중의 하나.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여행자도 물이 없이는 오래 견디지 못한다. 리하이 일행도 여행하는 도중 이와 같은 오아시스에서 쉬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림 9

레뮤엘 골짜기에서 리하이가 천막을 쳤다고 추정되는 지역(고대 유항길 포함)

거리

아코바로부터 알 후메이라까지 (해안을 따라) .....29킬로미터  
 알 후메이다에서부터 와디 움 주페인 정상까지 .....40킬로미터  
 정상서부터 와디 엘 아팔의 알 베다까지 .....53킬로미터  
 "사흘 동안"의 여행 거리 .....  
 .....122킬로미터  
 알 베다(레이맨강 어귀)에서 홍해까지 .....34킬로미터



감회를 무던 펜으로 다 형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알 베다가 참으로 레뮤엘 골짜기에 천막을 친 곳이라면 바로 그곳은 리하이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으로 두 번씩이나 돌아가기 위하여 머물렀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곳은 리하이가 늦쇠판을 읽고 가족에게 그들의 족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리하이는 여러 차례 희생 제물을 드렸고, 그곳에서 그는 쇠막대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과 사도들과의 지상 사명,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의 항해, 약속의 땅의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민족, 교회의 회복에 관한 시현을 보았으며, 그곳에서 니파이는 가관 감람 나무와 들 감람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였고, 그곳에서 다섯 차례의 결혼 예식과 더불어 곡식을 심고 추수하였던 것이다. 또한 리하이의 천막 밖에서 리아호나가 발견되어 권고를 받고, 미지의 목적지까지 그들을 인도하게 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리하이 시대에 이미 유항길이 있었다고 해서 리하이가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어디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리하이로서는 리아호나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리아호나는 여행길의 방향에 대한 지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침이 되어 주었다. 리아호나는 그들이 의로웠을 때에만 작동하였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방향을 잃게 되었다.

알 베다 가까이에는 니파이가 이끌려 올라가서 구세주에 관한 시현과 앞으로 있는 사건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세밀한 시현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었다.(니일 11~14장 참조) 근처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알 베다에서 북동쪽으로 3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2,550미터의 조발 알 러즈 산이었다.

리하이는 눈 앞에 보이는 흐르는 물에다 그의 만아들의 이름을 따 지었다. 니파이는 그의 부친(25페이지에서 계속)



## 땅속에 사는 사람

서리 리/글



여러 해 전, 일부러 땅 속에서 살았던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인간 두더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더지란 땅속에 굴을 파서 대부분의 생애를 그 곳에서 보내는 작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두더지가 사는 어두운 굴 속을 기어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만, 수 많은 사람들이 발다사레이 포레스티어가 만들어 놓은 프레스노 지하 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이상한 “집”은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4년 이래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포레스티어씨는 1879년에 시실리의 메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21세 때 그는 미국으로 건



너 와 뉴욕시의 지하철에서 일했습니다.

후에 포레스티어씨는 저축한 돈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프레스노 근처의 땅 200에이커(2,500,000평)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댐이 세워지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은 마치 황무지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은 또한 기온이 42.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곳이었습니다. 포레스티어씨는 더위 때문에 살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땅이 갈라지고 단단해서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일할 때 땅 속이 시원하던 것을 생각한 그는 이 열을 피할 굴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땅속에 방 서너개만 갖고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땅을 뚫으며, 그가 만들어 놓은 지하 방과 통로는 7에이커(약 90,750평)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방은 지표에서 3미터 가량 지하에 지어졌으며, 어떤 곳은 지하 7미터 정도로

파서 “이층”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60센티미터의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나 외마귀 손수레로 흙과 돌을 수백 톤이나 운반해 냈습니다. 그에게는 아아치, 원주, 둥근 천장 등 견고한 건축 양식을 사용하여 방과 통로를 설계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하게 방과 그로토스(동굴식의 피서용 방)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파티오(스페인식 집의 안뜰)를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지하 건축가의 최초의 거실은 재미있는 모형으로 장식된 방 두개였습니다. 그는 벽의 한쪽을 파서 앉을 수 있게 의자식으로 만들었으며, 벽에 홈을 파서 선반을 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방에는 햇빛이 들어 올 수 있게 창을 만들어 광선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겨울에는 유리로 막아 비를 막게 하였습니다.

점차로 그는 두 개의 침실과 거실, 부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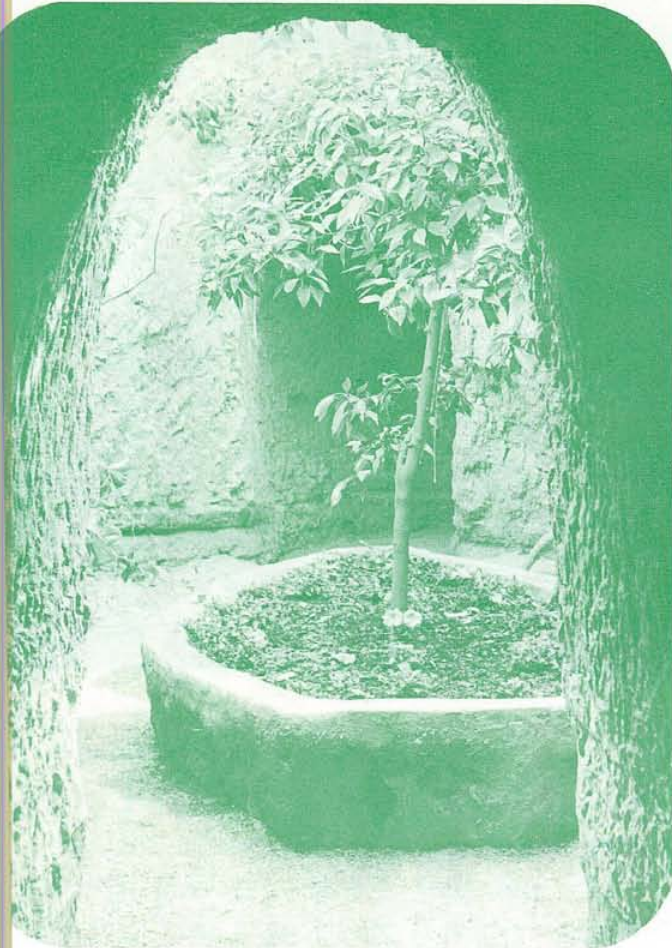
배당, 서재, 욕실 등을 정교하게 꾸몄습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침대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을 수 있는 책상, 그리고 두 개의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미닫이 창문을 만들었으며, 침실 하나에는 벽 면의 반 가량을 그림 창문으로 내었습니다. 그는 또한 들여다 보는 구멍을 만들어서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레스터어씨는 얼마간 그곳에서 살다가, 지하 뜰에 햇빛과 공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꽃, 채소, 관상목, 포도 등의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과 크기의 채광창을 만들었습니다. 방과 정원 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나

무가 자랐습니다.

포레스터어씨가 나무들을 접붙여서 어떤 나무에서는 이상한 열매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하 7미터에서 자란 그의 “이층 나무”에는 일곱 가지 종류의 감귤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귤(네블)과 발렌차 귤, 단 레몬과 신 레몬, 탄제린, 포도 그리고 치즈로(시실리의 토산 과일) 등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밖에도 포도, 들오디, 대추, 무궁화, 장미, 대추 야자, 아보카도, 알몬드, 마르멜로, 딸기, 배, 무화과, 샤론의 장미, 비파나무 등이 지하 정원에서 자랐습니다. 쥐엄 나무와 콩이 자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루와 초콜렛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식물에게 비료를 주기 위하여 포레스터어씨는 120킬로미터나 떨어진 호숫가에 가서 기름



진 좋은 흙을 그의 소형 자동차로 여러번 실어 왔습니다. 필요한 물은 우물과 펌프로 길었습니다. 포레스터어씨는 금붕어와 열대어를 기르는 수족관을 만들어서 지상과 지하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인간은 날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간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해저의 임시 집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관한 과학 소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재능 많은 사람은 50여 년 전에 이미 사람이 편리하게 기거할 수 있는 희귀하고 재미있는 집을 지어서 해마다 수많은 방문객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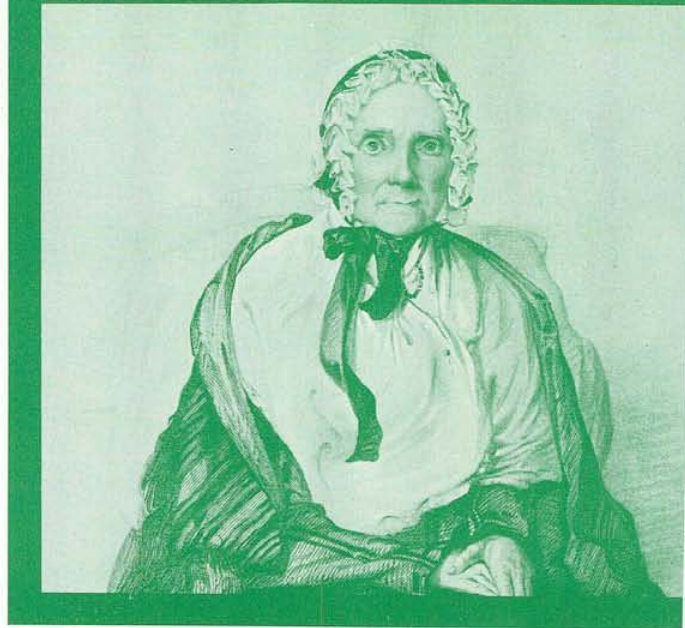
# 부모를 공경한 예언자

수잔 애링튼 매드슨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서나 성난 폭도들이 그를 쫓으면서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38년 가을, 그는 또 다시 미주우리주 파웨스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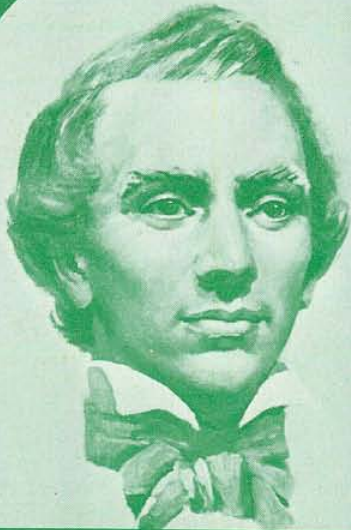
폭도들이 그를 묶고 포장 마차 안으로 밀어 넣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잡혀 가는 아들을 바라다 보고 있는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경관들은 예언자를 마차 밖으로 내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가까이 오도록 불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간신히 마차 포장의 찢어진 틈을 발견하고는 손을 내밀어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차는 요셉 스미스를 실은 채 리버티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사람들로 들끓는 그 감옥 속에서 그는 6 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부모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모님에 대한 그의 염려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는 요셉이 어린 소년으로서 다리에 수술을 받을 때의 일이었



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나 신음 소리를 보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방을 나가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술을 받는 동안 침대에 묶지 말고 아버지가 자기를 팔에 안고 있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요셉은 부모님의 침상 곁에서 그들의 건강을 돌보며 간호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집을 이사할 때면 그는 항상 부모님이 사실 집을 지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곁에 모시면서 그들의 충고를 받고 함께 지내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1830년, 예언자의 아버지, 요셉 스미스 일세가 침례를 받을 때 예언자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요셉은 강변에 서서 아버지를 붙들고는 기쁨의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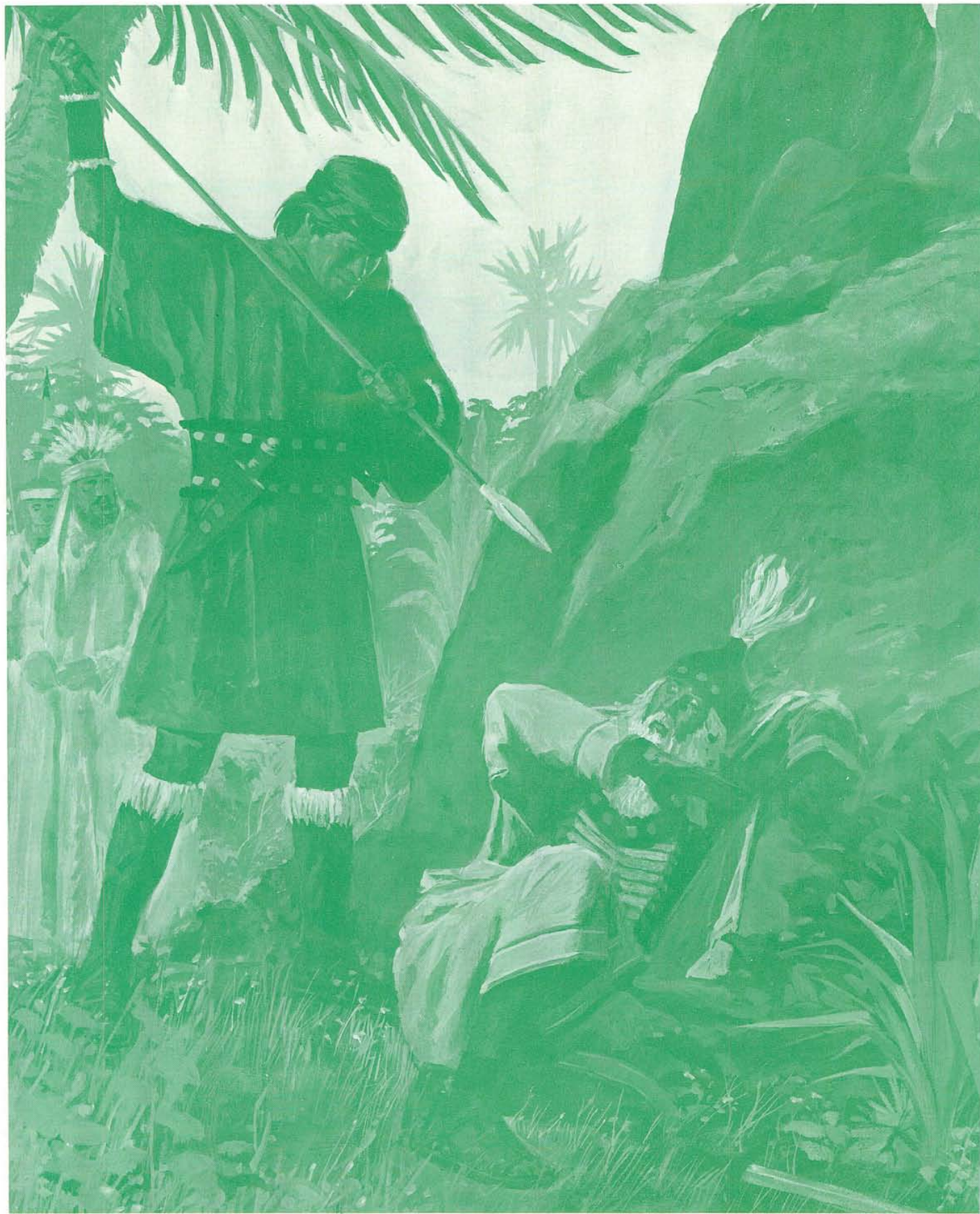
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아버지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침례받아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보였던 또 다른 사건은 그가 그의 형 윌리엄과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후 요셉은 아버지께로 가서 충고를 구했습니다. 어린 요셉은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 다툼은 해결되었습니다.

언젠가 요셉은 “풍부한 경험과 생을 살아서 고귀한 충고를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을 갖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탄생일(12월 23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가 부모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큰 사랑과 존경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도 그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믿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부모님이었으며,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될 때 그의 부모님은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833년, 그의 아버지는 교회의 축복사로 성임되었으며, 1년 후 그는 대관장단 보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복이 있으니,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내 아버지 역시 복이 있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







# 암몬

메이블 존스 개뿔

**권** 세있는 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다오. 그리하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노라.”

암몬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와 이스마엘 땅의 왕, 라모나이는 암몬의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민도나이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암몬을 니파이 땅으로 데려가 그의 부친에게 암몬을 보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암몬에게 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파이 땅으로 가지 말지니라. 보라 왕이 네 목숨을 빼앗으리라. 너는 민도나이 땅으로 가야 하나니, 보라 거기에 네 형제 아론과 물로카이와 엠마가 옥에 갇혀 있음이라.”

그래서 암몬은 라모나이에게 니파이 땅으로 갈 수 없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들을 구해내야 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라모나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무엇이랴도 다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도 당신과 함께 민도나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민도나이 땅의 왕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제들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누가 일러 주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게 민도나이로 가서 형제들을 구출하라고 말할 이가 없습니다.”라고 암몬이 대답하였습니다.

라모나이는 종들에게 말과 마차를 준비하도록 분부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서 그들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을 만났습니다. 그는 라모나이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너를 위하여 베푼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부친은 물으면서, “이 니파이

인과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라모나이는 시부스 강가에서 암몬이 레이맨인들로부터 그의 가족을 구해 준 것을 설명하였고, 라모나이의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침례받은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라모나이의 부친은 몹시 성을 내었습니다. 그는 암몬이 강도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고 외치면서 라모나이에게 암몬을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마는 라모나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암몬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서 구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며 참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언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모나이의 부친이 더욱 성이 난 것을 암몬은 볼 수 있었습니다. 노왕은 칼을 빼내어 암몬과 라모나이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의 칼을 막았습니다. 그는 왕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왕은 암몬이 자기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만 구해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암몬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먼저 나의 형제들을 옥에서 나오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들 라모나이 왕에 대한 노여움을 풀고 그가 다시 그의 왕국을 그의 생각대로 다스리게 허락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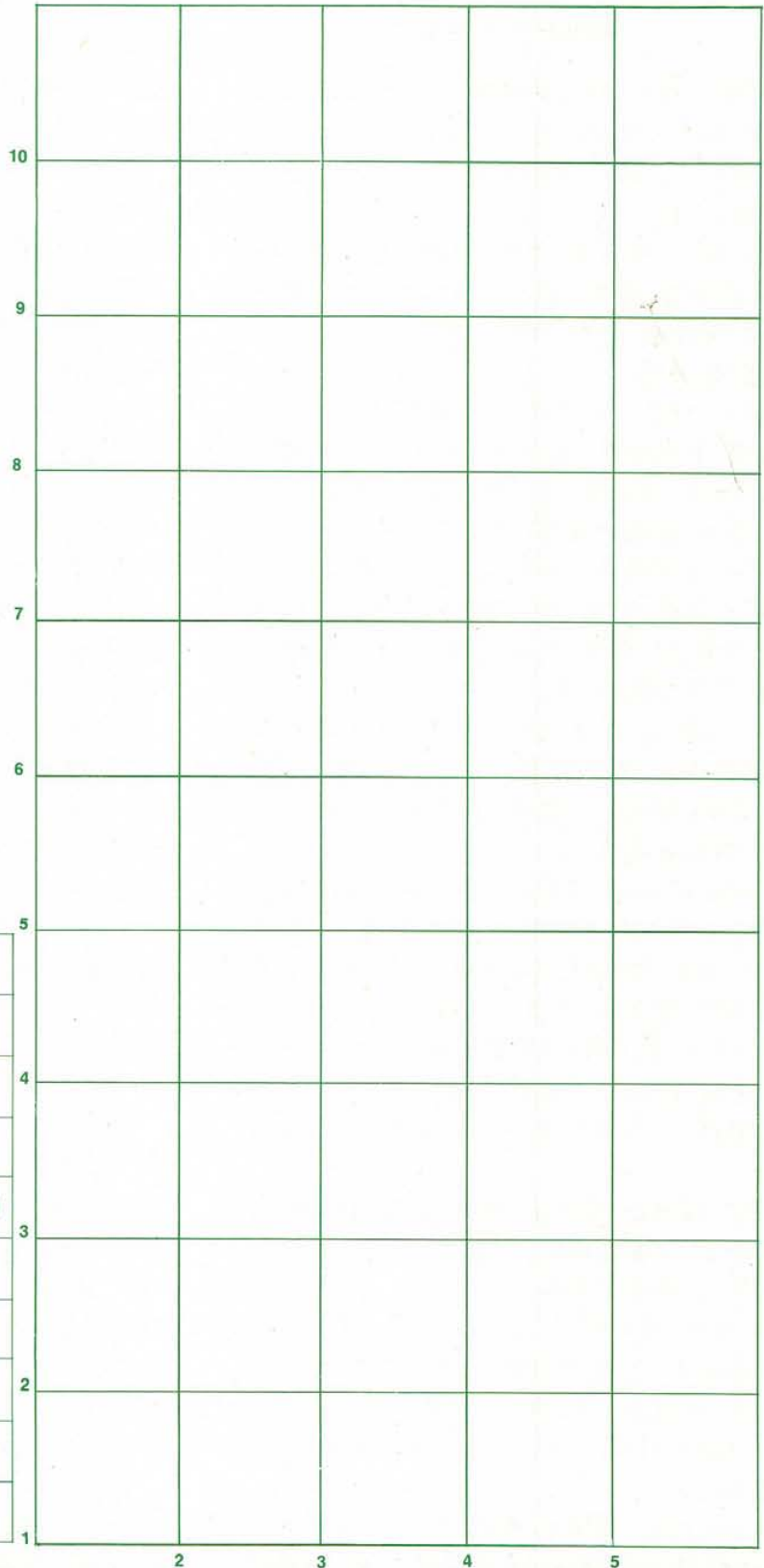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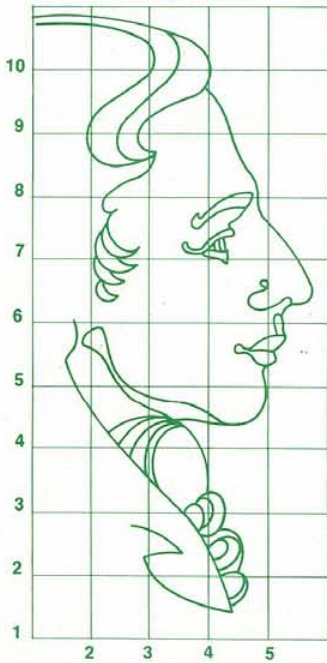
왕은 암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 것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암몬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 준 것에 몹시 기뻐했습니다. 또한 강하고 힘센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 라모나이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몹시 기뻐했습니다. 암몬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노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을 구출하면 나를 찾아 주오. 당신의 말을 더 배우고 싶소.”

암몬의 비이기심과 용맹성은 그의 친구와 형제들을 구할 수 있었으며, 선교 사업의 또 다른 문이 그에게 열려졌던 것입니다. \*

# 심심풀이



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얼굴을 4 배로 크게 그려 보세요. 왼쪽에 나와 있는 원형을 잘 보고 오른쪽의 빈칸 화면에 그대로 칸을 맞추며 확대하여 보세요.



리하이가 “강물이 홍해(의 샘)으로 흘러 들어감을 보시고”(니일 2:9)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강에서 교훈을 끌어 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록하였다. 아마도 이 말은 리하이가 그의 천막에서 물이 직접 홍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알베다는 와디가 홍해와 만나는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34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와 지리를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홍해의 샘”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샘이란 물의 수원지를 말하는 것이다. 홍해의 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코바만은 많은 물의 수원지라고 불리울 만하였다.

부친 리하이는 레뮤엘 골짜기를 가리켜 “굳세고 강건하여 흔들리지”(니일 2:10) 않는다고 묘사하였다. 현대의 와디 엘 아팔은 실로 그러하다. 모래바닥은 굳건한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다. 우리는 레뮤엘 골짜기로 확실히 여길 수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 베다 오아시스 근처에 있는 와디 엘 아팔에서 특별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 천막

이제 우리는 리하이가 삼 년 동안 머물렀을 야영지를 가능한 한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리고자 한다. 머리속에서 지어 보는 리하이의 천막에 관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알아야 할 사항은 천막의 모양이었다. 이스마엘 가족이 합세한 이후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가족마다 하나씩 천막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9 개의 천막이 있었을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우리가 본 천막이 그곳 주민이 수 세기 동안 내려 오는 동안 사용하던 전형적인 천막의 모양이라면 리하이 일행의 천막 모양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틀린 추측이 아니다. 역사가들은 베이트 샤(상속의 집, 곧 천막)이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변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는 천막이 “염소털”로 만들어진 “검정색”이며, “휘장”으로 칸막이가 되고(출 36:14)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이 매달려 있다고(출 26:36)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방문하여 조사한 상속의 집은 장방형이었으며, 지붕이 길게 놓여 있고 벽은 수직으로 되어 있었다. 가장 작은 천막이 9 개의 기둥으로 지어졌는데, 세 개의 가장 높은 기둥이 중앙에 세워져 있고 그보다 짧은 기둥이 양 옆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역시 염소털을 손으로 꼰 당김 밧줄은 바깥에 땅에 박은 말뚝(스테인크)에 연결하였다.(삿 4:21 참조) 각 천막에는 측면에 휘장으로 두세 군데 나뉘어져 있다. 적어도 한 곳은 남자용, 한 곳은 여자용, 다른 한 곳은 어린이용이었다.

리하이가 부유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상태를 천막에 반영시켰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검정색 천막을 사용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 방도가 없다.

낙타에서는 1년에 10파운드 가량의 털을 얻을 수 있고 염소는 그보다 적다. 이 털을 손으로 돌리는 물레로 굵은 실을 뻐다. 여기에서 나온 실을 갖고 짜면 양탄자처럼 두껍고, 질기고 무거운 천이 되는데 매우 따갑고 거칠다.

“상속의 집”은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 주는 그늘이 되며, 겨울에는 양 옆을 내리 막아 따뜻하게 해 준다. 천막은 이동식이기는 하지만 매우 무겁기 때문에 리하이는 이 천막을 운반할 짐승을 필요로 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베두인 유목민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천막은 길이가 9미터, 넓이가 그것의 반가량 되는 크기이다. (휘팅, 66페이지) 작은 천막이라면 낙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으나, 천막의 지주는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이 한 쪽 끝을 모래 위로 끌면서 운반하였다. 족장의 천막은 부에 따라 그 크기가 비례하여 커진다. 그러나 천막의 재료에는 변함이 없다. 각 칸이 서로 줄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칸은 동물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야에서 8년 동안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는 한 곳에서 여러 절기를 보냈어야 했다. 장기 야영기 중에 하나가 레뮤엘 골짜기였을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농작물을 심었을 것이다. 리하이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양식”을 갖고 떠났다. 그러나 많은 양을 갖고 떠났거나 여러 종류를 갖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니파이는 그들이 천막에서 머물고 레뮤엘 골짜기의 “광야에 머물러 계신” 후에 “온갖 곡식과 열매의 씨앗을 모았다”(니일 8:1)고 설명하였다. 밀과 보리는 니파이의 후손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이었으며, (모 9:9), 호밀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리하이 시대 이전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다.(사 28:15) 아마도 이러한 것이 니파이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곡식”일 것이다. 물론경은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과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니일 10:12; 니삼 14:16). 물론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리하이 시대에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경작되고 있던 과일로는 대추, 코코넛, 석류 등이 있다.

리하이의 일행은 레뮤엘 골짜기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길렀거나 구입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농업 지역에서 왔으며, 야영지 근처에는 (어느 정도의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강물”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이 먹을 곡식을 재배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 결혼

이같은 일상적인 생활 이외에도 이 계곡에서는 다섯 쌍의 남녀의 결혼 예식이 거행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셈족의 생활에서 가족이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며 축하하는 행사가 없으며, 딸이 자신의 결혼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기대하는 행사는 없다. 남자의 중요성보다 여자의 중요성이 더 큰 날이 바로 이 하루인 것이

다. 사막에서의 결혼 준비에는 혼수감 준비 뿐 아니라 새로 결혼하는 부부를 위한 천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이웃을 모두 결혼 잔치에 초대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혼이 안된다.

리하이의 네 아들과 레이벤의 종이었던 조래미 결혼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마엘에게는 적당한 수의 딸이 있었다. 결혼 적령기의 딸을 다섯이나 갖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아직 어린 아이일 때 정혼하며, 13살이 되면 결혼한다. 더욱 이상한 일은 이스마엘의 딸들이 한때 종이었던 조래미와 기꺼이 결혼했다는 사실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젊은이의 아버지나 친척이 그의 아내를 물색하여 결혼을 시켜 주는 것이 통례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리하이가 네 아들을 위하여 이스마엘과 협정하였을 것이다. “협정”이라야 이미 약조한 바를 근거로 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아닌 조래미도 “우리와 함께 하리라”(니일 4:34)라는 니파이의 약속에 따라 아들로써 협정할 때 포함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에 따르면 협정에 이어 약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딸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면서 약혼이 시작되며, 결혼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약혼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 약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며, 약혼을 성실한 성약으로 이해하였다.

구약 시대의 결혼은 정부의 인가나 종교적인 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가족의 행사로서 성실을 약속하는 성약과 가족과 친지들로부터의 축하를 받음으로써 결혼을 구하지 않았고, 다만 공중 앞에서 성실성을 약속하는 성약을 맺고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결혼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잔치인데, 행렬, 음악, 춤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때때로 일 주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 쌍이 한꺼번에 합동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결혼 잔치는 매우 화려했을 것이며, 혼인 잔치에는 모든 유목민까지도 초대되었을 것이다.

### 남쪽으로의 여행

리하이는 레뮤엘 야영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한 후, 그의 천막 문에서 “신묘한 솜씨로” 만들어진 돛쇠 공을 발견하였다. 이 공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주는 두 개의 바늘이 있었다.(니일 16:10 참조) 이 리아호나는 물몬경의 다섯 군데에서 “나침반”으로 불리고 있다.(앨 37:38, 43, 44; 니이 5:12; 니일 18:12). 그러나 이 나침반은 지구의 자력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침반에 대한 신앙과 관심에 따라 움직였다.(니일 16:28) 두 개의 바늘 중 하나에는 시시로 글이

적혀 있었다.(니일 16:26~27, 29)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도상으로 준비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우리는 우물로 연결되어 있는 유향길을 따라 아래로 여행하면 되는데 왜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리아호나를 주셨을까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였었다. 경전과 지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1. 리아호나가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킴”(니일 16:10)으로써 리하이 일행은 그곳에서 바다를 건너거나 동쪽 산맥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남동쪽으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 이 방향은 비교적 안전한 유향길과 일치하는 방향이었다.

2. 그러나 그 “길”은 해안 평야만큼이나 넓어 가장 넓은 길의 폭은 77킬로미터나 되었다. 낙타에게 꼴을 먹이는 대상이라면 물론 이같은 넓은 지역을 모두 사용하였을 것이다. 세이저에서 약간 해안쪽으로 내려 왔을 때, 니파이는 리아호나가 “광야의 가장 비옥한 땅”(니일 16:14)으로 인도하여 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마 빗물로 자란 풀이 있는 지역이거나 물웅덩이가 많은 지역이거나 별로 사용하지 않은 물웅덩이가 있는 지역일 것이다.

3. 리아호나는 니파이가 나무로 만든 새 활을 갖고 어디로 가야 식량을 얻을 수 있는지 간구하였을 때 큰 도구가 되었다. 방향구의 지시대로 그는 “산 꼭대기”(니일 16:30~31)로 올라가 식량을 구할 수 있었다.

4. 니파이는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리아호나의 방향 지시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니일 16:33) 여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5. 남동쪽으로 더 내려가다가 유향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 그들은 어느 길을 따라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한 길은 남쪽의 번창한 도시로 향하여져 있고, 다른 한 길은 동쪽의 보다 복잡한 길로 향하여져 있었다. 여기에서 리아호나는 그들에게 “동쪽”으로 여행하도록 방향을 가리켜 주었을 것이다.

리아호나가 제시한 첫번째 방향에 따라 가려고 리하이는 레뮤엘 골짜기의 천막을 뜯도록 지시했다. 일행은 레이먼강을 건너 “줄곧 남남동으로” “나홀 동안” 여행하여 천막을 치고 그 곳을 세이저라 이름하였다.(니일 16:13) 우리는 이들이 홍해안을 따라 아래로 여행하여 티하마까지 여행하였으리라고 추정하였다. 아코바로부터 알 베다까지 사흘 동안 115킬로미터를 여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면(하루 평균 38킬로미터), 나홀 동안의 여행으로 154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이들 일행은 홍해 연변 해안 평야에 있는 크고 매우 중요한 오아시스인 와디 알 아즈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곳이 바로 세이저의 위치가 된다고 본다. 이 지역은 불모의 모래가 동쪽으로 솟아있는 산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길게 펼쳐 있고, 서쪽으로는 맑고 푸른 홍해

가 놓여 있다. 물론 이 길은 고대 유항길이었으므로 도시에서 자란 여행자라 할지라도 이길로 여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이 해안 평야를 따라서는 우물이 해안을 따라 놓여 있기 때문에 대상들이 내륙으로 들어갈 기회는 거의 없다. 해안을 따라 우리는 손으로 공들여 파서 돌로 울타리를 해 놓은 우물을 여러 개 볼 수 있었다. 사막에서는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어떤 개인이 소유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기며,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리하이이는 가족과 가축을 먹일 물이 없이는 여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8년 동안 리하이 일행이 곡식을 재배하였다는 우리의 가정이 정확하다면 리하이이는 관개용수 역시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고대의 우물, 샘, 수조 등과 현대 시설을 갖춘 우물 등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간혹 조심스럽게 샘이 파져서 좋은 물만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샘도 보였다. 그러나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으로서 근처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는 곳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천연 자원부에 의해 그려진 대축척 지도에서 리하이가 따라왔을 길을 따라가 보면 길 전체를 통하여 118개의 구형의 샘이나 우물이 나타나 있다. 이 지도에는 고대, 심지어는 천여 년 전에 이루어진 “손으로 판” 우물과 과거 몇 십 년간에 이루어진 현대식 “기계로 판” 우물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길을 따라 손으로 판 오래 된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리하이 시대의 것과 같다면 수원과 수원 사이의 거리는 평균 29킬로미터가 되며, 물이 없는 가장 긴 길의 거리는 106킬로미터임을 발견하게 된다. 지도는 아코바로부터 살랄라까지 물이 귀하여 여행하기 힘든 지역을 두 군데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지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다로부터 알 쿤푸다까지로서, 알 쿤푸다는 리하이가 천막을 치고 네이홈이라 이름하고 이스마엘이 죽은 곳으로 여겨진다. 이곳은 수원 사이의 거리가 평균 38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두 번째 지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나즈란(네이홈 근처)에서부터 오만의 살랄라까지 동쪽으로 횡단하는 여행길이다. 이 지역의 수원간의 거리는 평균 42킬로미터나 되었다. 이 두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길이 리하이 일행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여행이었다는 니파이의 설명은 흥미롭다.(니일 16:20, 17:1)

### 부러진 활

물문경에서 우리는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활과 화살과 투석기로 동물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일 16:23) 그 지역의 안내자는 어렸을 때에 “총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젤(아프리카 산양의 일종)을 수백



리하이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 아바 지역에는 이와 같은 높은 산들이 있어 여행하기 매우 힘든 지역이다. 따라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고난을”(니일 17:1) 겪게 되었다. 이 좁은 와디는 홍해로부터 아바 고원까지를 감돌고 있는 고대 길의 하나이다.

마리 쏘았다고 말해 주었다. 산에는 당나귀, 가젤, 오릭스, 야생 염소, 비둘기, 너조, 염조, 들소, 토끼, 그리고 염소, 말, 나귀, 낙타, 개 등의 가축 등이 많이 있다고 그는 말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개는 토끼를 잡도록 훈련된 빠른 그레이하운드이다. 살루키스라고 불리우는 이 개는 유목민들간에 매우 흔한 개로서 거의 모든 가정이 한 마리씩은 갖고 있다. 그 밖에도 리하이의 가족이 식용으로 삼지는 않았어도 그 지역에 동물군을 이루고 있던 동물들로 늑대, 재칼, 올빼미, 뱀 등이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의 식사 풍습에서 금지되지 않았던 메뚜기(레 11:21~22)도 이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두인 유목민은 메뚜기를 진미 식품으로 여기므로, 이를 말려 저장하여 1년 내내 먹는다. 개까지도 메뚜기를 좋아한다. 여러 해만에 한 번 오는 “메뚜기 철”은 사막인들에게 소추수감사 절기와도 같다.(윌리엄 트레이시, “바이오렛 덕슨과의 환담,” 아랍코 월드지, 1972년 11~12월호, 23:17)

현대의 지다 주변의 홍해 해안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왜 니파이가 강철 활을 부러뜨렸으며, 왜 그의 형들의 나무 활이 탄력을 잃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강철 활에 대한 성경상의 참고 자료를 원하면 다음 성구를 참조한다. 삼하 22:35; 시 18:34; 욕 20:24) 활을 부러뜨린 사건은 그들이 “여러 날 동안”(니파이는 이 말을 다음 성구에서 거듭 언급하고 있다 니일 16:15; 16:17.) 여행한 후 휴식을 취하러 천막을 친 후에 발생하였다. 여자와 어린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여행한 이들 일행으로서 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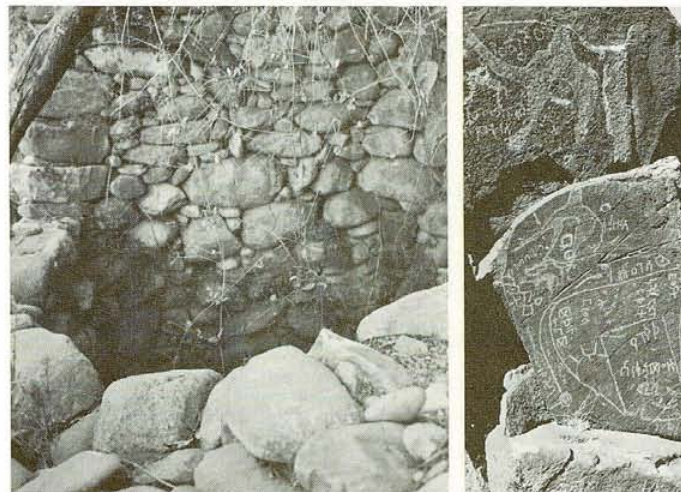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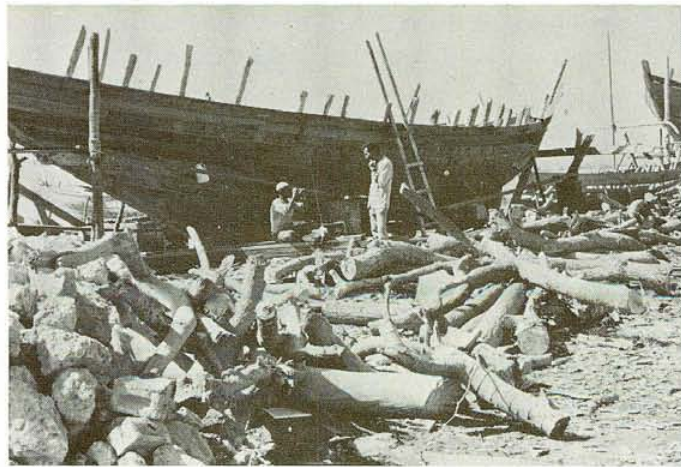
이 부러졌던 천막을 떠난 후 다시 “어러 날”(33절)을 여행하여 네이홈에 도착하였다는 니파이의 말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활이 부러진 곳은 세이저와 네이홈 사이의 중간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위와 습도와 모래와 소금이 무자비하게 뒤범벅이 되어 강철이라도 능히 부러뜨릴 기후를 갖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다 부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만에 자동차의 흠반이에 녹이 슬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3월부터 11월까지의 더위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더위다. 1월 말에도 섭씨 29도를 넘는 때가 있다. 습도는 1년 내내 60퍼센트 가량이나 되며 15년을 주기로 해서 1년 내내 습도가 92퍼센트나 되는 해가 돌아온다고 한다.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강철이 이같은 조건에서 견뎌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주변의 건물이나 조선소에서 우리는 거의 강철을 보지 못하였다.

니파이의 활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지 않았겠는가? 녹으로 약해진 활은 니파이가 힘껏 당기자 쉽게 부러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 형들의 활이 모두 탄력을 잃게 된 것도 이 기후 때문인 것이다. 그들이 나무로 된 활을 갖고 있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장력이 강하고 단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홍해 연변을 따라 여행하면서 활은 그곳의 습기를 빨아들였을 것이며, 따라서 어린 나무 가지처럼 잘 구부러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가끔 그들이 갖고 있는 목재 물품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하였다고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것이 니파이가 당면하게 된 문제였다. 그러나 니파이는 나무를 발견하여 새로운 활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니일 16:23) 우리의 고고학자 친구인 살림 사드는 지다 부근에서 자라는 석류 나무로 좋은 활을 만들 수 있다고 열심히 설명하였다. 이 석류 나무는 염분이 있는 지역에서 자란다. 석류 나무는 비교적 줄기가 곧으며, 놀랄 정도로 유연하면서 강인한 과실수이다.

리하이 시대의 지다는 아마도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 오십만의 대도시이다. 25년 전만 해도 지다에서는 수신인의 주소를 “나무 두 그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라고 하여도 정확하게 편지가 배달되었다. 물론 현재는 많은 나무가 들어서 있다. 지다의 조선소에서 우리는 손으로 합판을 파며, 수동식 드릴, 톱, 까뀌, 도끼 등으로 용골과 이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단철을 약간 넣어 단단한 나무로 만든 수동식 드릴을 구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드릴은 그것을 감은 가죽끈에 의하여 회전되며, 이물에 붙여 있었다. 현대인의 눈에는 매우 원시적이고 우스꽝스러웠지만 불과 몇 초 동안에 단단한 합판을 세 개나 뚫어 내는 것을 보았다.

해안을 따라 북쪽에 위치한 엔보에서도 우리는 조선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대풍의 톱을 보고 지다에서와 같이



상: 지다의 조선소. 이 커다란 돛배는 합판을 나무 늑체에 단단하게 붙들어 매어 만든다. 손연장만을 사용하는 조선공은 머리속에 배의 청사진을 갖고 다닌다. 이 정도 크기의 배가 중국, 잔디바, 인도 등지로 역사적인 항해를 하였던 것이다. 하 좌: 사우디 아라비아의 돌로 쌓은 무물. 사막 생활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의 정착이 불가능하며, 여행도 위험하다. 베두인 유목민은 이 무물에서 저 무물로 물을 따라 다니며, 리하이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하 우: 고대 유항길을 따라 가면 바위에 새겨 놓은 그림 문자를 많이 볼 수 있다. 지친 낙타 여행자들이 심심풀이로 새겨 놓은 것이 현대의 고고학자들에게 고대의 진로를 찾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강철 톱날을 나무틀에 단단하게 박고 톱날의 반대편 나무의 끝을 연결한 밧줄에 나무 막대를 끼워 단단하게 붙들어 맨 것이었다. 이것 역시 모양이 원시적이긴 했으나 두꺼운 합판을 쉽게 자르는 것이었다.

우리는 니파이가 배만드는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채목을 다듬거나 배를 만들지 아니하고”(니일 18:2)라고 설명한 것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배를 지으면서 니파이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해안의 조선소에서부터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배의 바깥쪽 부분(늑골)을 이루는 재료를 다듬을 때 그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자연히 곡선을 이루고 있는 큰 가지를 면밀하게 택하여 작은 손도끼나 까뀌로 깎고 있었

하여 주었다. 아라비아 반도를 처음으로 지나간 고대의 작가들은 모두 리하이 일행이 갔으리라고 생각되는 길을 따라, 오아시스, 마을, 유목민 들이 이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식량 품목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낙타를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었다. 사막인에게 있어서 낙타는 “사막의 배”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다. 낙타는 생활의 수단이요, 하나님 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참으로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낙타의 종류, 태생, 조건, 성장 단계에 따라 700 여 개의 아랍 이름이 현존하게 되었다. 낙타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40년 내지 50년이 되며, 어미 낙타는 새끼를 낳은 후 4년 동안 젖을 낸다. 베두인 유목민은 낙타 젖과 대추, 야자만을 먹고도 수 개월, 심지어는 수년 동안도 살 수 있다.

낙타의 젖은 매우 귀한 것이므로 베두인 민족은 새끼 낙타에게 여섯 주간만 자유롭게 젖을 빨게한다. 여섯 주가 지나면 가죽 가방으로 어미 낙타의 유방을 가리고는 새끼 낙타에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젖을 먹이게 한다. 새끼 낙타는 곧 이유하게 된다.(데시저, 231페이지)

사우디 아라비아, 아바의 셰이크 헬완 하브타씨는 사막에서 한 사람이 식량을 완전히 낙타에게만 의존할 때 4 마리의 낙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리하이가 온전히 낙타의 젖에만 식량을 의존하였을 경우에는 20 여 명이나 되는 일행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큰 무리의 낙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야생 동물을 잡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곡식을 경작하여 먹기도 하였으므로 베두인 유목민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날고기”(니일 17:2)를 먹었다는 니파이의 말이 우리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에—실은 혐오감마저 들었다—우리는 카이로에서 우리의 친구 앤지 추크리가 그 지방의 진미로서 날고기를 주었을 때 그것을 먹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는 저으기 놀랐다. 그러나 날고기라 해서 상상했듯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가 아니라, 마늘과 기타 다른 양념이 가미되어 있었다. 태양 빛에 말려 걸은 질은 갈색이었으나 속은 진분홍빛으로 씹어 먹기에 연한 것이었다. 물론 마늘의 냄새가 진동하긴 했으나 뒤에 남은 부드러운 뒷맛은 날고기를 먹는다는 인상을 변화시켜 주었다. 후에 우리는 이집트 시장, 요단 시장, 사우디 아라비아 시장 등지에서 날고기를 파는 모습을 보았다. 모양은 커다란 소시지처럼 큰 덩어리로 되어, 앤지가 우리에게 주었던 고기와 거의 같이 양념이 되어 있었다. 아랍인들이 이것에 붙인 이름이 바스테르마, 풀이하여 “날고기”라는 것에 특별한 관심이 쏠렸는데, 다시 말해서 니파이가 사용한 용어는 의미를 설명한 말일 뿐만 아니라 고유 명사인 것이었다. 홍해로부터 바운티풀까지의 파란많은 여행길에서 불이 없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와 같은 방법이 곧 주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상 : 살랄라 연안에 끌어 올려진 작은 배. 아마도 이곳에서 니파이가 배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배를 띄워 아라비아해로 들어갔으리라 생각된다.  
하 : 중동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낙엽성 식물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단한 나무로서, 수분이 적고 강한 태양열에도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 그들은 작업할 때 발과 발가락을 사용하여 재목을 고정시킴으로써 자연히 생겨 있는 재목의 곡선을 그대로 보존했다. 우리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니파이가 좀더 세밀하게 기록했다면 하고 아쉬워 했다.

### 양식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양식에 관해 좀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대의 사막인들은 현대의 베두인 유목민들이 먹는 식량과 같은 종류를 먹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우리는 주전 1,000년 경에 보리, 밀, 마늘, 대추, 렌즈콩, 올리브, 호두, 도토리 등이 재배되었다는 증거를 보았다. 확실히 이와 같은 곡식이 리하이 시대의 주요 농산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현대에 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주식이 되었다. 우리의 중동 역사가 친구는 사막인의 생활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거의 없다고 계속 설명

## 네이홈

니파이는 리하이 일행이 홍해 변방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여행하여 “네이홈이라 하는 곳에”(니일 16:34) 도착하여 천막을 쳤다고 기록하였다. 일행이 다시 여행하였을 때, “우리는... 광야로 여행을 계속하여... 거의 동쪽으로만 나아갔느니라.”(니일 17:1) 유향길은 위도 19도선에서 동쪽으로 꺾여진다. 네이홈이 위치하였던 곳이 아마도 이곳이라 짐작된다.

위도 19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의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쿤푸다이다. 물론 우리는 이스마엘이 묻혀 있는 곳이 그 부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지방의 장례식과 매장 풍습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네이홈이라고 추정되는 이곳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옮겨 가면 해발 3,000미터 정도의 험준한 산맥과 맞닿게 된다. 고대 유향길의 하나는 이 지역 부근에서 해안선을 벗어나 동쪽으로 와디 아바비쉬(그림 2)를 통과하여 산을 넘어 수다 마을로 이어져, 현재 해발 1,800미터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수도인 대상의 도시, 아바에서 다른 유향길과 만나게 된다.

지형상으로 리하이가 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외의 다른 길은 없었다. 드러나 있는 바위에 새겨진 것이 풍화된 것으로 보아 수백년 동안 대상의 행렬이 이곳을 지나갔음을 알 수 있다.

아바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때마침 필요로 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헬완 하브타씨는 우리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십 이대 선조까지의 족보를 낭송하여 주었다. 그날

살랄라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 지역은 목재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큰 나무가 자라는 아라비아 남해안의 유일한 곳이다.



저녁 때 함께 초대되었던 세 사람의 다른 사람들도 십 삼대까지의 조상을 암송하여 주었다. 우리가 그들의 암송을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매우 즐거워하였다.

운이 좋게도 우리가 아바에 있던 화요일은 마침 장날이었다. 이 풍습은 수백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 풍습이 언제부터 유래된 것인지를 하브타씨도 알지 못하였다. 장터에서는 꿀, 유향, 몰약, 과일, 채소, 의복, 옷감, 나귀, 양, 낙타 등을 팔고 있었다.

우리는 유향과 몰약을 파는 장터에 관심이 갔다. 유향은 손가락 끝 크기 만한 덩어리로 나오며, 몰약은 적갈색으로 바위 모양의 덩어리나 갈아 놓은 부스러기 형태로 나온다. 유향은 비교적 값싼 편이나(파운드 당 1불), 몰약은 약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모든 신생아에게 인생의 맛이 쓰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목적으로 몰약의 맛을 보게 한다고 한다. 어린 아이가 아플 때 향로에 몰약을 피우는 것으로 보아 회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루살렘에 사는 45세의 아랍인은 그가 어린 시절에 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에게 타오르는 몰약 향로 위로 뛰어 넘게 하셨다고 말해 주었다. 이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몰약을 예물로 드린 이유의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를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하이는 에멘과 호드로무트 계곡을 피해 지나갔다. 이곳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마안 민족이 주전 1,200년경에 이곳에 처음으로 왕국을 세웠으며, 그후를 이은 사바 민족이 리하이 시대에 그곳을 통치하였다.

리하이 일행이 에멘과 호드로무트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니파이는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날고기를 먹었으며 불을 지피지 않았고 “많은 고난을” 헤쳐가 결국 해안의 비옥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니일 17:1~5 참조) 만일 그들이 주요 유향길을 따라 에멘을 지나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였다면 그들은 대부분 비옥한 지역을 통하여 여행하였을 것이었다.

리하이와 그의 일행은 나즈란의 북쪽과 동쪽으로 뻗어 있는 지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인 앰프티 쿼터의 변방을 도는 유향길의 지름길이치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따라 거의 동쪽으로만 여행하였다.

유향길은 남쪽 변방을 따라 이어져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자동차로 여행하지 않고 비행기로 지나갔다. 그곳은 달표면과 같이 나무가 없이 불모인 산악 지대로서 간혹 잡초 더미만 보일 뿐이었다. 지진과 부식 작용으로 갈라진 바위 덩이가 이 불모지를 덮고 있었다. 와디에 물이 흐르거나 많이 고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을 자동차로 여행하였다더라면 천둥 폭우를 만났을 것이었다. \*

(다음 호에 계속)



**표**준 경전에 운동에 관한 성구가 여러 개 나온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의 한 사람인 로버트 매튜스는 사도 바울이 그의 몇몇 서한에서 약간의 체육 용어를 사용한 것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그의 저서의 머릿말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회랍의 고린도에서는(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년 마다 한 번씩 회랍인이 즐겨 하는 운동, 예를 들면 도보 경주, 권투, 높이 뛰기, 레슬링,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전차 경주 등과 같은 종목을 포함한 대 운동회가 열렸다. 상은 소나무 가지나

담장이 앞으로 만든 관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승자는 고향에서 크게 추대되고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 운동회에 출전하려면 심한 훈련과 오랜 동안의 연습이 필요하였습니다. 경기 출전자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승리하겠다는 굳은 각오로써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여 경기에 임하여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은 여러 번 이 경기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권투가, 투사, 달리는 자, 달리는 길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야수와 싸우는 검사, 승자의 면류관, 목표, 상, 심한 훈련, 적당한 상태 유지, 출발하는 자, 심판, 무엇

보다도 이기고자 하는 의지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와 같은 경기와 운동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생활에 적용시키고 특히 자기 훈련과 극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운동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매튜스 형제는 아마도 바울이 당시의 대 회랍 경기장에 들어 가서 마라톤 주자들이 출발점에 서서 잠주를 벗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에 따라 그들이 출발하면 이웃 마을을 돌아 42킬로미터의 거리를 뛰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심판관이 승자에게 상을 수여 합니다. 바울은 이 경주를 지켜 보면서 인생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브리서 12:1~2)

바울은 단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신, 곧 이기겠다는 의지를 운동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승리의 관을 쓴 승자를 보았고, 승자가

## 인생이라는 경기

폴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받은 월계관을 보았으며, 언젠가 그가 가장 훌륭한 관, 곧 영생의 관을 받아 당당하게 서 있게 될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승자들이 승리를 얻기 위하여 애쓴 노력을 보았고, 이들이 열의와 활기를 지니고 경주에 참전한 것을 알았으며,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비유는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특히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생생한 비유를 끌어 내어 설명하는 데 비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서의 승리도 운동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노력, 자기 훈련, 그리고 완전한 헌신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의 서한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입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경기에 참전하는 사람은 모두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나무 가지로 만든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이같이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목적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고전 9:24~27 참조)

바울이 그의 친구 디모데에게 한 말을 살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 4:7~8)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위대한 훈계를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딤후 2:5 참조) 이 한 줄에는 위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인생이란 흥미로운 규칙과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인

생이라는 경주의 규칙과 규정을 지켜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과 나는 매우 중요한 경기에 임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보내졌으며, 이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분별력과 이해력과 코우치의 말을 들을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코우치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그밖의 총관리 역원, 감독, 스테이크 부장, 지도자, 훌륭한 교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생의 특별한 때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의 규칙에 따라 경주하도록 돕기 위하여 보내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후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경기의 출전자들에게 그들의 현명하고 능력있는 충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인생이란 경기에서 지금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1)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 큰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합니다. (2)일단 준비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과 나누어, 이 세상을 살기 좋고 아름답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업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경전은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64편에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인데 이 계시는 교회가 조직된 직후 1831년 9월에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회원의 수가 적었으나 복음을 나누고 가르쳐야 할 책임은 참으로 컸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리인이니, 주의 심부름하는 자라.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세우사 말일에 성

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게 하시고 시온의 땅에 상속의 땅을 확보하게 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64:29~30)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 주는 너희에게 선포하였고 나의 말은 분명하며 결코 헛되지 아니하려니, 성도들은 상속의 땅을 얻으리라.

“그러나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교리와 성약 64:31~34)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40년대에 나의 동생이 뉴잉글랜드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으며(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노바 스코샤의 켄트빌이라 하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부분의 선교 사업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몇몇 장로들과 선교사들의 경우처럼 동생은 개종자를 침례한 일에서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생이 일을 못하여 결실을 전혀 보지 못하였을 때 형들이 동생을 놀려대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설세없이 그의 결실이 없는 선교 사업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그의 형, 폴이 같은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바 스코샤의 할리팩스에서 열린 첫번째 지방 대회에서 일차 모임이 끝난 후 어느 자매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던 장로님, 혹시 동생의 이름이 데이비드가 아닙니까?”

“그런데요”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신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선교사들은 이러한 것을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고는 여러 장의 사진을 들춰더니 한 장을 꺼내어 보이면서, “이 사람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20년 전의 동생이군요.”

“어머나, 그분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남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분과 연락을 하고 싶어요.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예요.”

“아닙니다. 잘못 아셨군요. 제 동생은 한 사람도 교회에 인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형제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예요—” 그러더니 그 자매는 대 가족을 거느린 여섯 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리팩스 지방부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형제님의 동생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 주신 것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 너희 이웃을 가르치라

한두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이웃을 경고”하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교성 88:81 참조) 이웃은 모든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얼마전에 몹시 아팠습니다. 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베테란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 내가 도와 줄 일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다지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사람은 흔히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병실에 들어 서자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아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지요.”

그는 혈압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령 때문에 그의 병은 완치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발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그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 말했습니다. “잠시 다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나는 그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갑자기 아프셔서 놀라셨지요? 형제님이 입원하고 계신 것을 감독님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감독님께 알려 드려도 폐가 안될까요?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뇨.”

나는 침대에 앉아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신앙에 대하여 약 이분 반동안 말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 대한 신앙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를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한번도 그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62세였으며,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물론 나는 병동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 방에는 4명의 다른 환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환자가 함께 방을 쓰는 병동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르치는 동안(설교조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 둘 사이의 이야기처럼 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떠나려고 일어서면서 친구의 머리에 두 손을 올려 놓고는, 돌아서서 영이 지시하는 대로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병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병든 나의 친구를 병문안하러 왔음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가정 복음 교사이입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물론이죠. 저는 여러분을 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영적으로 돕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그것을 하려 합니다. 이 친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축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축복에 참여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친구를 위하여 이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경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영이 우리 두 사람을 모두 감동시켜, 내 생각으로 약 22년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축복을 끝내고 우리는 서로 부등켜 안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불쾌하게 했나요?”

“천만에요, 던 형제님” 그는 말이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방을 나서려 할 때, 나머지 네 사람이 그두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말일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은사를 나누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온 목적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이 생은 커다란 경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규칙대로 행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남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

# 그의 양을 먹임

데오 이 맥킨



**미**식가의 식사는 대단히 훌륭하고 맛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시장한 배를 안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 온 나에게 버터가 흠뻑 말린 집에서 구운 따끈한 빵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와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이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가리켜 “생명의 떡”(요 6:32~35 참조)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흥미롭고 직접적이었다.”(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데저렛 서적사: 솔트레이크시티, 1975년], 19페이지)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의 교수법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앞으로 교사가 될 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구세주와 같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77년 4 월호, 28페이지, “교사/학생의 관계” 참조)

구세주의 교수 방법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속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시대들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가르치시는 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교수 방법을 살펴 봄으로써 그의 양을 먹이라는 부름이 올 때 나아가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19페이지)

가르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교수 보조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은 (1)강의, (2)질의 응답, (3)반복입니다.”(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224페이지)

강의는 교사에게 복음의 근본 진리를 가르칠 기회를 주

고, 학생에게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질의 응답은 이러한 진리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에게 줍니다. 반복은 학생으로 하여금 배운 진리를 복습하여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줍니다.

## (1)강의

강의란 단지 교사의 생명이 없는 장황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강의는 영적으로 구미를 돋구어 주고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따라야 할 모범적인 교사이신 구세주께서는 생명의 떡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떡의 몫과 그 크기는 각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는 사람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와 따르고자 하는 태도에 따라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는 영적인 영양식이 있습니다.

패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교수 방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행한다면 우리는 종교 교사로서 그의 교수법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보다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자는 이 원리를 유화(인식)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유화(인식)란 ‘과거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다른 어떤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사랑 등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를 가르칠 때 우리는 학생이 이미 겪었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과 비교하거나 이입시키면 그들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같은 책, 20페이지)

예수께서는 “천국은...과 같으니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천국을 비교하였습니다. (같은 기사의 “교수상에서의 유화 원리 사용”을 참조하여 좀더 자세하게 토론한다.)

유화 원리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 시각 자료의 사용인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사용하는 것의 대부분은 배우는 사람들의 주위 환경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동전, 백합화 등등은 그 당시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패커 장로의 다음 조언은 우리에게 시각 보조 자료, 특히 사람이 만든 보조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각 보조 자료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각 보조 자료는 가장 단순한 것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칠판보다 더 좋은 보조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용하기가 단순하며, 둘째,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공과를 전달할 때 학생들의 눈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칠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이야기하면서 반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일반적인 개념을 줄 수 있기에 칠판을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결코 시각 자료 자체가 교사의 공과보다 더 흥미로와서는 안됩니다.

“글자만을 시각 보조 자료로서 사용할 때는 시각적인 면과 청각적인 면이 동시에 일치되지 않아 감흥을 주는 속도가 늦게 됩니다. 따라서 글자만을 가지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칠판에 적

거나, 도표를 사용하거나, 낱말을 용판에 붙이거나, 환등기를 통하여 영사막에 투영하거나, 반원은 눈으로 볼과 동시에 귀로 들어야 합니다....

“시청각 자료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유익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자료는 음식의 양념이나 향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보조 자료는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과를 보다 흥미롭게 진행시켜야 합니다.”(같은 책, 224~225 페이지)

## (2)질의 응답

질의 응답도 구세주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교수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책임을 학생에게 지웠습니다. 학생이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질의 응답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은 진리의 근본 원리를 깊이 성찰함으로써 이해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니삼 12:13)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니삼 14:3)

이같은 질문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며, 또한 이를 개인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때때로 구세주께서는 어떤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답으로 또 다른 질문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구세주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질문하였을 때 즉시 그에 대한 해답을 말해줌으로써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곧잘 교사들은 간단한 질문에 즉시 답을 말해 줌으로써 반 토론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하고 대화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교사는 능란하고 기분 좋은 어조로, ‘그것 참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반원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의 대화가 오갈 때, 반 전체를 참여시킬 수 있게 되며, 반원은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55~56페이지)

## (3)반복

때때로 구세주께서는 진리를 배운 자에게 배운 진리를 다시 상기 시키게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의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이에 대한 예로서 눅 10:36~37을 참조한다.) 이와 같이 진리를 반복시킬 때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눅 10:37)

이같이 하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어떻게 하여 진리를 단순하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쳤는지 또한 그의 아버지의 양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여야겠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 유화 원리를 사용하여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우리가 예수의 교수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이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의 교수법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종교 교사로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가는 이 원리를 유화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함

유화란 “과거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다른 어떤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사랑 등 가르치기 어려운 것을 가르쳐야 할 때 우리는 학생이 이미 겪었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과 비교하면 학생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사용함

학생이 이미 알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질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을 지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으며, 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용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로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실물 공과로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은 모르고 있는 것 보다는 아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알파벳의 철자는 단어를 이루며,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 만져 볼 수 있는 사물을 상징하게 됩니다. 책 한 권에는 이같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단어들이 상징하는 사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인 사물으로써 만져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물을 “읽을” 줄 알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징물이 나타내는 신앙, 사랑, 순종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용하신 교수법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교수법을 배우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이해하면 유익한...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교성 88:78) (제5장 “유화”, 20, 26,~27페이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든가 기타 만져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져 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교사, 특히 종교 교사에게

게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자녀에게 약간 어려운 것을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공식이 너무나 단순해서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연구해 보고 실제로 실험하면서 우리는 이 공식이 너무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교수법은 신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청중에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없는 복음의 개념을 가르치신 교사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신앙과 사랑과 형제애와 회개를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인 사물에 비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유화라고 말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은 \_\_\_\_\_과 같다.

첫번째 빈 칸에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개념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을 첫번째 빈 칸에 적습니다.

신앙은 \_\_\_\_\_과 같다.

이제 신앙과 비슷한 것으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실물을 생각해 내십시오. 보다 가정적이고, 보다 일반적이며, 보다 일상적일수록, 예가 좋습니다. 이러한 예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씨앗과 같다. 적어도 엘마가 생각하였듯이, 신앙은 정말 씨앗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라.

“보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키워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완전한 지식을 갖추도록 성장한 것은 아니다.”(엘마서 32:28~29)

신앙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물에 비유하였음을 유의하십시오. 신앙을 부피가 있는 사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씨앗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산을 예로 들어 비교하면서 예수께서는 크기를 비교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단 신앙을 실체의 사물에 비유하였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그리고, 묘사하고, 썰 수가 있으며, 크기나 모양이나 색이나 질감을 말할 수 있으며, 칠판에 그리거나, 사진을 보이거나, 용판용 오린 자료를 만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물 공과로써 실제의 씨앗을 보이거나 채소의 씨나 과일 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화는 복음을 가르치는 열쇠

유화란 신앙, 사랑, 경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어린 사람에게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면

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의 교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주제를 들어 봅시다.

회개는 \_\_\_\_\_과 같다.

회개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누를 들어 보기로 합시다.

회개는 비누와 같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전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인생의 더러움을 씻는 비누입니다. 비누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더러운 범법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채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회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흰색 손수건이 진흙물속에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물로 잘 빨면 다시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진흙물속에 빠져서 다시 빨고 또 빠져 다시 빨기를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수건은 곧 회색으로 물들어 아무리 강력 세제도 회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 그룹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 공식을 발표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개념을 가르치는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우리는 12 가지도 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상상력을 활용함

너무 고지식하고 문자 자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지식한 사람에게는 비유나 참조나 심지어 주님이 사용하신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는 상상력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한 교사가 회개는 비누와 절대로 같지 않다고 논쟁을 펴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국이 절대로 그물과 같지 않으며, 바리새인이 회칠한 무덤과 같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창의적인 상상력은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재미있는 교사이기는커녕 매우 둔한 교사가 될 것입니다. 문자 자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사에게는 유화가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과 같다”, 제 6 장, 28~31페이지)

이제 유화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경전을 다시 보고 이같은 교수법이 사용된 여러 가지 예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항상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물이나 경험을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들어 보인 예를 검토해 보면 모두가 극히 일상적인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학습 경험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가르치신 사람들과 공통으로 갖고 있던 가지는 기본적인 생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의 개인 생활에 관한 지식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가 당대에 평범한 생활인으로 지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세계를 우리에게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듣는 청중의 배경을 직설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때때로 그는 당시 모든 젊은이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근본적인 종교 교육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것

산상 수훈은 다른 교수법의 예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화 원리에 입각하여 사용된 자료는 비유에서 풍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상 생활을 언급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참조하기 위하여 유대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탉, 병아리, 새, 꽃, 이리, 나무, 강도, 석양,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의원, 깊은 형질, 가라지 뽑기, 집 청소, 돼지에게 먹이 치기, 채로 곡식을 까부르기, 곳간에 쌓기, 집 짓기, 일꾼을 부리기 등등에 대하여 언급 하셨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도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없으며, 모두 현실적이고 일상 생활의 일부인 것입니다.

### "...와 같으니라"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 내부에 있는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 주변에서 만져 볼 수 있는 사물과 비교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 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암탉과 병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다른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암탉과 병아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경험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의 경험을 서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비교하신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사용하신 적용의 예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을 사용하였을 때(마 5:13) 그는 청중에게 일반적인 식탁용 조미료에 관심을 모으게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신 소금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먹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중의 과거 경험을 보다 범위가 넓고, 의미가 크며, 포괄적인 학습으로 연결시켜 주는 디딤돌로 사용된 것입니다.

앞서, 신앙이나 회개나 겸손과 같은 개념은 구체적인 형태를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크기도, 형체도, 질감도, 색채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려 보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제 7 장, "책 속에 있다." 33~36, 38~39페이지)

비교하고 참조할 수 있는 주제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돌아보기만 하면 주변에서 많은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화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신세계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나는 애리조나주 스코트데일 근처의 선더버드에서 학도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말에 피닉스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기지로 다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당시의 스코트데일은 피닉스의 교외 지역으로서 도로라고는 서로 교차되고 있는 두 개의 도로 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훈련생 몇 명은 차를 잡지 못하여 기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낡은 차 한 대가 우리 곁에 멈추더니 신사 한 분이 우리에게 올라타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낡은 차 안에 모두 탈 수는 없었으나 문 곁에 발을 디디는 발판에 나머지 사람이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모두 올라타고 서로 잡담하면서 천천히 차를 몰아 갔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기후와 마른 불모지에 대한 불평을 토하였습니다. 마침내 신사는 차를 세우고 우리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자기가 자연 과학 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사막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식물과 동물 등의 생물을 보여 주었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오그라져서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식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이 모든 식물은 모두 봄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른 채소잎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물 속에 넣어 보세요. 몇 시간 안 가서 잎이 펴지고 푸르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참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요."

그후로 사막은 전과 달리 보였습니다. 항상 그곳은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화의 원리를 이해하면 온 세계가 이같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돌아다 보면 의미를 갖고 있는 예를 여기 저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 원리는 온 세계를 시각 보조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원리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대화의 수단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개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천 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에 비교할 수 있는 사물을 찾기 시작하면 교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교사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체를 추상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제 9 장, "실례의 세계" 51~52페이지) \*

## 서울 서 스테이크 탄생

1973년 아시아 대륙에서는 최초로 역사적인 첫 스테이크가 탄생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서울 스테이크가 1977년 5월 22일 대회를 기해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서 스테이크로 분리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스테이크가 한국 땅에 탄생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힝클리 사도가 이 역사적인 모임을 감리하였으며, 십이사도 지역대표인 니시모도 형제가 그를 도왔다.

서울 스테이크에서 분리되어 조직된 서울 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는 김 창선 형제가, 제1보좌로 김 차봉 형제가, 제2보좌로 이 남선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서울 서 스테이크의 총 회원수는 2,800명이며, 과거 서울 스테이크 산하 제2와드, 제6와드, 제7와드, 제9와드와 서울 선교부 산하 인천 지부, 수원 지부, 화곡 지부, 안양 지부가 각각 스테이크로 편입되었다. 인천 지부는 이번 대회를 기해 와드로 승격되어 현재 서울 서 스테이크는 5개의 와드와 3개의 지부를 갖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서울 서 스테이크를 탄생시킨 서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는 이 호남 형제가, 그의 제1보좌로 최 옥환 형제가, 제2보좌로 서 회철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서울 스테이크의 총 회원 수는 3,200명이며, 서울 제1와드, 제3와드, 제4와드, 제5와드, 제8와드, 상계 지부 및 과거 선교부 산하의 성남 지부, 잠실 지부, 면목 지부 등 5개의 와드와 3개의 지부로 재 조직되었다.

새로 부름을 받은 양 스테이크 부장단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인 이 호남 부장은 1934년 2월 29일 일본 야마구치정에서 출생하였으며 1954년에 침례를 받고 개종하였다. 그는 박 연순 자매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1967년 4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도 지부장, 지방부장, 선교부장단 보좌를 역임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신학 연구원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항공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었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 옥환 부장은 1936년 5월 13일 충북 보은에서 출생하였으며 1967년에 개종하였다. 서 인석 자매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 최 부장은 1970년 8월에 하와이 신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그는 지부장, 지방부 평의원, 스테이크부장단 보좌를 역임하였다. 최 부장은 서울 대학교 치과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72년에 동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현재 치과를 개업하고 있으며, 연세 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외래 부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대한 구강 해부학회 부회장과 서울 특별시 의사회와 서울 대학교 동창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위: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고든 비 힝클리 장로와 신권 지도자들. 아래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서 회철 부장은 1943년 7월 14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62년에 개종하였다. 정 경순 자매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는 서 부장은 교회에서 선교부 상향회 회장, 지방부 평의원,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서 부장은 서울 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현재 연세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한국 신학 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인 김창 선 부장은 1929년 2월 28일 함경도 성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67년에 침례를 받고 개종하였다. 부인인 김 형옥 자매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둔 김 부장은 1970년에 하와이 신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았다. 그는 지부장, 지방부장,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등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두루 역임하였다. 김 부장은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유네스코 장학금을 받아 인도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수학한 바 있다. 이 화 여대, 서울 대학교와 카톨릭 의대에서 교편을 잡은 바도 있는 김 부장은 현재 한일병원 정신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중이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김 차봉 부장은 1941년 10월 7일 여수에서 출생하였으며 1961년에 침례를 받았다. 김 휘나 자매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둔 김 부장은 서부 지부장, 동부 지부장, 서울 제1와드 감독, 고등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그는 연세 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신학 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 남선 부장은 1946년 1월 30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64년에 침례를 받았다. 부인 김 명자 자매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둔 이 부장은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아론 신권 책임자,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이 부장은 고려 대학교 정경 대학 정치 외교 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현재 한국 번역 출판부 번역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서 스테이크의 부름 받은 역원 명단은 다음 페이지에 소개한다.



# 교회 및 지역 소식



좌로부터 최 옥환 제1보좌, 이 호남 부장, 서 희철 제2보좌

## 서울 스테이크 역원 명단

스테이크 부장 : 이 호남  
 제 1 보좌 : 최 옥환  
 제 2 보좌 : 서 희철  
 집행 서기 : 정 민호  
 서기 : 정 기만  
 축 복 사 : 박 순종

고등 평의원 : 장 기호  
 이 흥직  
 최 인빈  
 김 상호  
 남 영진  
 최 동일  
 장 세문  
 이 강우  
 구 본동

상호부조회 회장 : 윤 창숙  
 주학학교 회장 : 권 오량  
 초등협회 회장 : 김 유미

스테이크 선교부장 : 손 완경  
 멜기세덱 상이회 청남 회장 : 장 경환  
 멜기세덱 상이회 청녀 회장 : 구 본은

제 1 와드 감독 : 손 승은  
 제 3 와드 감독 : 김 중열  
 제 4 와드 감독 : 김 용일  
 제 5 와드 감독 : 조 병하  
 제 8 와드 감독 : 김 수영

상계지부 지부장 : 최 동현  
 면목지부 지부장 : 손 승주  
 잠실지부 지부장 : 하 봉식  
 성남지부 지부장 : 양 정일



좌로부터 김 차봉 제1보좌, 김 창선 부장, 이 남선 제2보좌

## 서울 서 스테이크 역원 명단

스테이크 부장 : 김 창선  
 제 1 보좌 : 김 차봉  
 제 2 보좌 : 이 남선  
 집행 서기 : 김 영근  
 서기 : 김 조수  
 축 복 사 : 조 인식

고등 평의원 : 김 산 홍 무광  
 구 중식 송 평중  
 이 용상 양 해운  
 박 기생 김 희남  
 박 정욱 정 지현  
 서 원  
 구 원서  
 윤 덕순  
 정 윤

상호부조회 회장 : 고 옥진  
 주일학교 회장 : 권 용건  
 초등협회 회장 : 김 순남  
 청녀 책임자 : 박 중숙

스테이크 선교부장 : 신 국재  
 멜기세덱 상이회 청남 회장 : 조 광현  
 멜기세덱 상이회 청녀 회장 : 강 혜임

제 2 와드 감독 : 조 규영  
 제 6 와드 감독 : 오 광근  
 제 7 와드 감독 : 최 귀열  
 제 9 와드 감독 : 조 신환

인천와드 감독 : 허 채  
 화곡지부 지부장 : 이 도환  
 수원지부 지부장 : 이 영희  
 안양지부 지부장 : 하 우거

## 부산 선교부 지역 모임

1978~79년도 교회의 새로운 지침에 대한 교육과 역원 훈련을 위한 부산 선교부 지역 모임이 니시모도 지역 대표를 모시고 선교부 산하 5개 지방부 역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4일 부산 지부에서 열렸다.

이 병학 부산 지방부장의 사회로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이 모임에서 지역 모임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한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22개의 분반 모임으로 나뉘어 각종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반에 참석한 역원들은 부산지방부 역원들이 준비한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니시모도 지역 대표와 한 인상 선교부장은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살피기도 하였다.

오후 6시 20분 부터 7시까지의 휴식 시간에는 부산 지방부 대신권 상이회에서 준비한 김밥을 함께 들면서 오랫동안 만난 기쁨과 인사를 나누며 흐뭇한 한때를 보냈다.

지역 모임이 끝난 후 가진 평가회에서는 니시모도 형제는 토론 지도자로부터 성과와 건의를 일일이 묻고 기록하신 후 "우리가 육신으로는 몹시 피로해 있으나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고 말씀하시며 부산 선교부로서는 처음 이 지역 모임이 훌륭하게 진행되는데 대하여 준비를 맡은 모든 역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 대전 지부 준공

지난 5월 28일 서울 선교부 산하 대전 지부에서는 전 종철 부선교부장의 감리하에 신축 건물 준공식이 있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10여 명의 내빈과 충남 대학교 합창단 40여명, 청주 등지에서 온 성도 등 모두 12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그동안 지부 건축을 위해 수고한 건축 책임자 김 상호 형제와 바버 형제의 건축 결과 보고를 들었으며, 지부에서는 이 두 사람과 피어슨 형제에게 노고를 치하하여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송 운현 지부장과 전 종철 부선교부장의 격려와 축하 말씀이 있었다.

이 건물에는 지부장실, 예배당, 공과 교실, 상호부조회 실이 갖추어져 있다.



상: 지역 모임에서 역원을 교육 하는 신권 지도자. 하: 열심히 경청하는 부산 선교부 산하 각 지방부 역원들.

## 마산 지방부 체육 대회

지난 6월 6일, 마산 지방부는 지방부 주최 제 1회 체육 대회를 가졌다.

마산, 진해, 진주 등지에서 회원과 구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대회에서는 배구, 피구, 육상 경기 등 여러 종목에서 우승을 거두었는데 배구 시합에서는 열띤 응원과 격전 끝에 조직된지 1년밖에 안 되는 진주 지부가 우승을 차지하여 금년 10월에 있을 부산 선교부장배 정탈 배구 대회에 마산 지방부 대표로 참전할 자격을 획득하였고, 지부 대항 피구와 릴레이 등은 지부간의 유대와 회원 구도자 간의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경기를 진행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배구 대회에서 우승한 진주 지부 성도들



